

南北韓比較 社會

南北韓 靑少年의 意識構造 形成過程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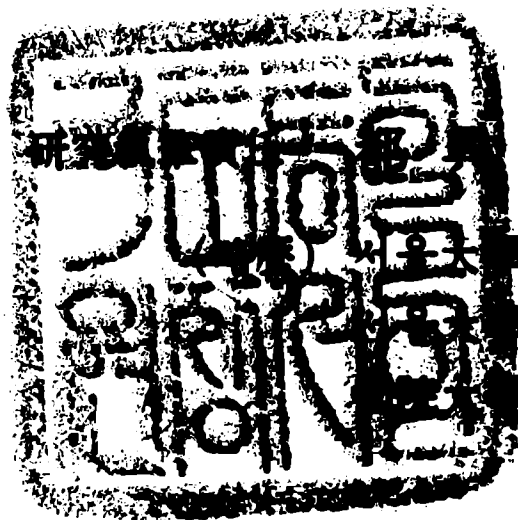
보 판 용
(코. 리. 파)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 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 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韓比較—社會

南北韓 青少年의 意識構造 形成過程 比較



烈

서울대학교 社會學科 卒(1963)

서울대학교 大學院 社會學科 卒(1966)

서울대학교 大學院 教授(1976年 ~ 現在)

刊行責任: 崔炳輔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目 次—

序	3
가. 問題意識	3
나. 基本前提 : 分析의 틀	4
1. 意識構造形成의 社会構造的 背景	9
가. 家 族	9
나. 交 友	14
다. 北韓의 託兒所와 幼稚院	16
라. 組織生活	23
마. 学 校	33
바. 매스 미디어의 役割	36
(1) 北 韓	36
(2) 韓 国	39
2. 社会化의 目標와 學習方法	45
가. 韓國의 社会化目標와 學習方法	45
나. 北韓의 社会化目標와 主要價值觀	49
다. 北韓의 學習 및 訓練方法	56
3. 人間의 兩面性	62
가. 同調的 適應性의 側面	62
나. 反社会的 独自性의 側面	67
다. 人間의 兩面的 特性	70

4. 北韓青少年的 意識構造.....	75
가. 기대하는 理想的 人間型.....	75
나. 實際的인 社會意識의 樣態.....	81
(1) 攻擊性과 被暗示性.....	81
(2) 官僚意識과 官僚主義的 作風.....	84
(3) 過剩同調性과 不安意識.....	88
(4) 意識構造의 二重性.....	92
5. 韓國青少年的 意識構造.....	95
가. 人 生 觀.....	95
나. 社會觀과 國家觀.....	100
다. 道德意識.....	107
라. 世代意識.....	110
6. 要約과 結言.....	117

가. 問題意識

南北韓關係에 있어서 分斷 1世代는 南北韓을 각기 상이한 理念과 體制構成原理에 입각한 異質化된 社會構造로 變遷시켜 놓았다. 나아가 그러한 異質的인 社會構造는 다시 서로 對立的인 人間型을 추구해왔다. 이에 따라 특히 南北韓 靑少年들의 意識構造의 異質化傾向은 더욱 深化·擴大되고 있다.

이는 單一民族으로서 民族통합의 民族史的 當爲性을 더욱 위기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北韓社會에서는 共產主義的 價値를 주입시킨 共產主義的으로 주조된 第二世代가 全人口의 $\frac{2}{3}$ 를 차지하는 多數集團으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은 점차 社會 各분야에 걸친 主要役割의 担当者로서 그 社會的 勢力을 굳혀가고 있다. 그들은 또 既成의 世代와는 달리 韓國靑少年들과는 相互對立的 性格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의 南北韓關係를 더욱 惡化시키는 장본인의 노릇을 떠맡게 될 것이 明確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또 意識의 側面에서 볼때 우리의 平和的 再結合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過去 人類歷史가 人間의 物質的 欲求를 解決하는데 寄與해 왔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歷史는 人間的 條件을 充足시키는데 보다 焦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社會的 發展段階에 따라 社會構造가 高度로 分化하고 複雜해지게 되면 物量的 條件의 充足도

重要하지만 그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人間的 條件에 있어서 더욱 많은 問題가 發生하기 때문이다. 近代歷史는 漸次로 이러한 側面에다 더욱 關心을 쏟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한 國家·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個個人들이 가진 성격특성, 態度, 價值觀, 思考體系, 意識構造 등 이러한 心理條件들은 個人의 實踐的 行動方向과 그 行動의 強度를 決定하는 內面的 要素로서 크게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이러한 社會心理의 知識은 人間이 特定한 狀況에서 取하게 될 여러가지 性向, 例컨대 祖國에 대한 마음자짐, 宣傳에 대한 反應, 戰爭에 對한 參與度, 壓力에 對한 抵抗樣態등을 豫測하고 對應하는데 絶對적으로 必要한 여러가지 指針과 증거자료를 提供해 준다고 한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心理的 要素는 社會體制的 力量을 가늠하는 主要한 指標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南北對話의 길을 가로막아 韓半島의 永久分斷을 고착시키는 潛在的 기능마저도 担当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나. 基本前提: 分析의 틀

社會學에 있어서 人間의 概念은 社會를 통해 社會的으로 形成되고 창조되어 가는 存在로 본다. 人間이란 어떤 環境속에서 適應하는 過程을 통해 他者로부터 社會的으로 是認된 態度, 理念, 感情, 行動樣式을 學習하는 過程에서 비로소 社會的 存在로 變形되고 자기나름의 意識構造를 정립하게 된다. 따라서 後天的 條件의 作

用에 따라서 人間性 내지 意識構造를 目的하는 方向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論理가 成立한다. 그리고 期待되는 人間像의 정립은 보다 幼兒期부터 意識的 教育訓練을 자행하는에서 보다 큰 成果를 거둘 수 있다는 것도 一般화된 見解이다. 이는 論理的 思考가 究達하고 批判力이 형성된 後의 自我에 대해서는 外的 學習의 注入效果가 적어진다는 點을 시사한다.

대체로 西歐의 心理学에서는, 퍼스낼리티의 決定因을 遺傳과 環境의 두가지 側面에서 追求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遺傳 및 環境 자체를 個人的 힘으로서는 統制할 수 없는 外的 힘으로 想定하는 것으로도 看做되므로, 자칫하면 宿命論에 빠질 念慮가 있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秩序와 새로운 人間을 創造하려는 共產主義 指導者들에게는 권장받을 立場이 못된다. 그 結果 社會主義的 심리학에서는 「二要素說(유전과 환경)代身에 三要素說 내지 四要素說이 제창된다. 즉 遺傳, 環境, 訓練, 自己訓練에 의해서 퍼스낼리티가 決定된다」라고 主張하는 것이다. 이러한 例는 Bauer가 소비에트의 心理学教科書를 토대로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人間像의 時代的 變遷을 추적한 結果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客觀的 科學인 心理学의 교과서에까지 “訓練”, “自己訓練” 등의 倫理的 要素가 비정상하게 重視되고 있다는 점이다.⁽¹⁾ 共產主義社會의 心理学에서 묘사되는 人間像이란 그때그때의 政治的 必要性에 의해서 變化되는 것이며, 그것은 또 동시에 心理学이 政治的, 道德的, 이데올로기의, 階級的인 色彩를 농후하게 띠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련의 例에서 「訓練」이 강조된 것은 1936年 스탈린憲法에 의
해 이미 社會主義가 完成되었다고 외치던 前後였다는 사실에 注目
할만하다. 즉 環境的 條件으로서는 이미 社會主義가 樹立되었음에
도 不拘하고, 아직도 社會主義 社會의 道德的 規範으로부터 離脫하
는 者가 있다면, 그것은 社會主義 社會에 原因이 있는 것이 아니
라, 個人의 怠慢이나 意識가운데 남아있는 資本主義的 殘滓때문이며,
요컨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訓練이 不足한데서 나타나는 것이
라 說明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自己訓練」과 병행해서, 「意識性」이 극히 중
요시된다. 원래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있어서는, 放任된 個人의 自
然發生的인 現象은 경시되고 意識的 努力만이 重視된다는 基本的
思考方式이 內在하고 있었지만, 특히 意識性이 현저하게 강조된 것
은 30年代중엽부터이다. Bauer에 의하면 「意識性的의 가장 重要
한 기능은 當面한 直接的 狀況의 制約으로부터 人間을 自由로이
하는 것이며, 그 當面한 狀況을 초월한 目的이나 作業을 向해서,
各自의 行動을 方向지우는 것을 可能하게 해 준다. 그래서 이러
한 意識性的의 發達은 當面한 狀況의 裏面에 潛在하고 있는 諸要求
와 關心을 內面化하게 되고, 드디어는 行動을 自發的인 것으로 되
게 한다.」⁽²⁾ 이와같이 意識性은 人間의 主体的 行動을 可能하게
하는 仲介的 媒体로서 重要視되며, 나아가 「理想」과 「義務感」의
重要한 動機로서 作用하기에 이른다. 「義務感」은 최고의 동기이
며, 다른 모든 동기는 그것에 從屬한다. 個人的 要求와 社會的

要求가 一致하는 경우, 人間은 最高의 意識的 自由를 達成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意味하는 義務感이란 一元的 動機가 아니고, 祖國愛, 黨에의 獻身, 軍事的 勇猛心등의 結果物인 것이다.」⁽³⁾

여기에서 비로소 社會主義 社會에 있어서 個人的 利益과 社會的 利益과의 葛藤이 解消되는 것이라 主張하고 있다.

이와같이 하여 南北韓의 心理觀에는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 自由陣營의 心理学은 環境과 遺傳의 2大要素로서 人間의 行動을 이해한다. 그러나 共產陣營의 心理学에서는 環境, 遺傳, 訓練의 3要素를 設定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에서도 訓練 특히 自己訓練이 철저히 강조된다. 바꾸어 말하면 北韓에서는 철두철미 人間心理를 길들이는 作業이 重要한 과업으로 되어 있다. 討論會의 自己批判은 모두가 集團效果를 利用한 人間改造의 方法인 것이다. 이러한 集團主義的 教育은 北韓의 社會體制維持와 불가분의 關係를 가진다. 社會體制와 일치하는 社會意識은 社會主義的 計劃과 計算을 可能하게 하는 核心的 變수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社會的 人間(personality)과 意識構造形成(socialization)에 관한 지금까지의 社會心理學的 理論을 前提로 南北韓에서 展開되고 있는 社會化過程과 이에 따른 意識構造의 諸特性을 규명하는 것은 重要한 問題가 된다. 이를 위하여 本研究에 있어서는 첫째 :

- ① 社會化過程에 있어서 그 배경적 매개요소(環境的 要因)
- ② 人間의 本性(遺傳的 要因)

③ 學習理論과 訓練方法 (訓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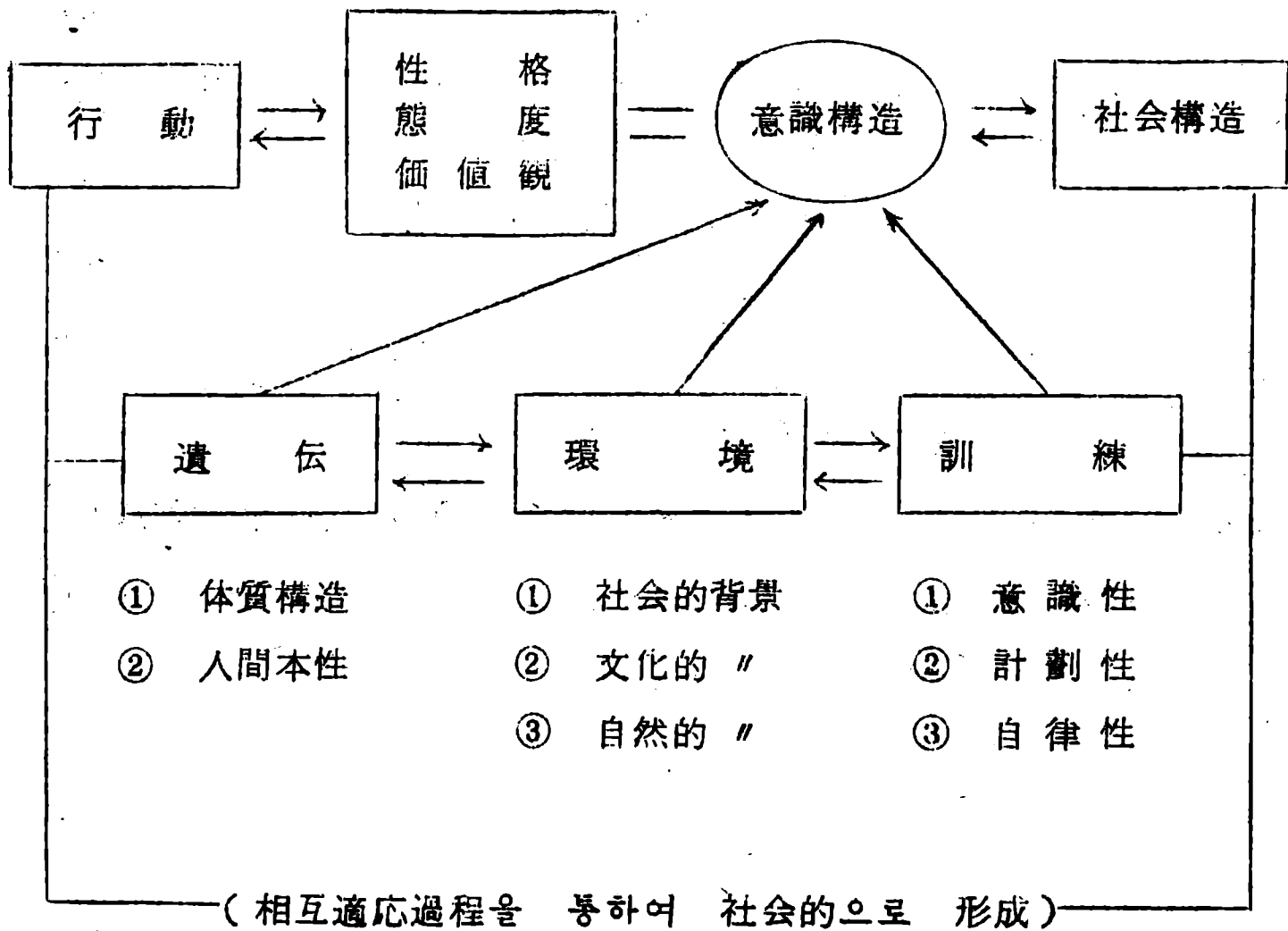
이들 三者間의 力學的 相互關係를 토대로 南北韓 靑少年의 社會 意識形成過程을 규명하고,

둘째, 南北韓 靑少年의 意識構造의 特性을 비교한 다음,

세째는 특히 北韓의 非人道的 社會化 方法에서 유래하는 意識構造上的 諸問題에 注目하고자 한다. (圖 1 參照)

<圖 1>

意識構造形成過程



1. 意識構造形成의 社會構造的 背景

가. 家 族

韓國社會에 있어서 社會化는 家族에서부터 시작된다. 家族은 어린이들을 제일 먼저 길들이고 가장 感受性이 예민한 大部分의 期間을 家族속에서 影響을 받는다. 이런 면에서 家族은 韓國青少年意識의 源泉이 되고 있다.⁽⁴⁾ (表 1 參照)

家族이란 夫婦를 中心으로 父母, 子女, 兄弟 등 소수의 近親者가 주요 構成員으로 되는 第一次的 福祉追求의 集團이다. 人間은 家族에서 出生하고 그곳에서 養育되며 成長한다. 즉 家族은 人間 最初의 生活領域이다.

이와같이 家族에서의 人間關係 및 家庭教育은 幼少年期에 있어서 青少年의 人格形成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重要하다. 家族은 아이들의 人格의 기초를 형성하는 最初의 場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愛情과 休息을 提供하고 예의범절, 教育, 對話 등의 方法으로 健全한 社會人으로서의 行動樣式을 傳達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健全한 家族生活의 모습, 家族에서의 子女訓育方法, 父母의 權威와 信賴性의 維持, 명량한 가정분위기 조성 등에 관해서 바른 知識과 理解가 要請된다. 그러나 만일 자라나는 青少年들에게 家族이 없다면 그리고 그들을 養育할 父母가 없다면 그들의 成長過程에 어떤 結果가 나타날 것인가는 重大한 社會問題가 된다.

人間은 인간의 子息으로 出生함으로써 人間이 되는 것이 아니라 人間에 의해 養育됨으로써 비로소 人間이 되는 것이며 그것도 家族에서 父母에 의해 養育되어야 하고, 또 可能的 限 愛情과 理解, 誠意와 能力을 갖춘 어머니에 의해 養育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린이들은 그 속에서 人間다운 行動을 훌륭하게 체득하게 되고 社会的 人間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家族集團의 기본적 기능인 것이다.

이러한 側面에서 韓國家族의 社会化機能에 있어서 중요한 몇가지 特徵을 살펴보자.

첫째, 家族의 社会化에서 一次的으로 重要的 것은 부모의 養育方式이다. 말하자면 젓먹이는 방식과 大小便에 관한 訓練方式에서부터 社会化가 시작되고 그것이 靑少年 意識構造의 母體가 된다는 것이다.

韓國부모들의 젓먹이는 방식은 젓먹이는 期間이 길고 放任制授乳를 하고 있다. 이와같은 관습은 父母와 子女間의 愛情을 두텁게 하고, 서로 친밀해지게 하지만 한편으로 相互依存의 心性을 길러낸다.

따라서 韓國靑少年들의 情誼的 性格은 父母들의 養育方式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라 보겠다.

<表 1> 젊은이의 人格形成에 크게 影響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

区 分	全 体	21 ~ 25 세	26 ~ 30 세	31 ~ 35 세	男	女
① 家庭環境	36.5	41.7	37.3	34.0	33.1	60.0
② 친구관계	9.0	10.4	13.4	6.0	8.3	13.0
③ 學校教育	15.0	9.3	11.9	8.0	16.6	5.6
④ 社會環境	32.0	27.1	29.9	48.0	33.7	22.2
⑤ 軍隊生活	0.5	—	—	—	6.6	—
⑥ 職 場	6.0	12.5	4.5	4.0	5.9	5.6

* “한국의 젊은이의 價值觀 및 意識構造”, 사회기풍순화대책 참고자료 제 1 집 (보사부, 1974), P.75 인용

둘째, 父母들의 子女教育의 方式도 중요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 韓国家族에서는 비교적 專制的 方法으로 子女를 기르고 있다. 즉 父母의 뜻대로 아이들을 따르게 만들려고 한다. 일일이 父母들이 子女들의 行動을 규제하려 하고 子女들이 해야 할 行動의 틀을 미리 정해 준다. 그리고 父母가 정해 준 틀을 벗어난 行動에 대해서는 父母가 價值없는 制裁를 가한다. 이러한 父母中心的인 訓育方式은 전통적인 三綱五倫의 禮儀凡節을 간수하려는 思考体系와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父母와 子女의 權威序列이 嚴格히 지켜지는, 上下關係를 고수하는 訓育方式이 採択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父母의 權威에 순종하는 양전한 아이를 길러낸다. 靑少

年의 中庸的 性格은 이러한 過程에서 권장된 結果라 하겠다.

세째, 父母들의 賞罰體系도 아주 重要한 기능을 担当하고 있다. 아이들의 行動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장 심하게 尊重하고 어느 것을 가장 칭찬해 주느냐의 方式이 아이들의 性格形成에 크게 作用한다는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는 子女들이 家族內의 序列體系를 무시하고 父母에게 대들었을 경우에 가장 심하게 나무란다. 이것은 序列을 尊重하는 것이 가장 價値있는 것이라는 道德意識을 扶植시킨다. 이렇게 하여 靑少年들을 規範志向的 性格의 所有者로 만들어 버린다.

다른 한편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고 報償을 주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 이것은 父母들이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고 권장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예컨대 子女들이 父母들에게 孝誠을 다하고 父母들에게 복종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하나의 義務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各별한 칭찬의 對象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國家的 觀点에서 長期的으로 볼 때 子女가 장래성 있는 行動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칭찬해 주어야만 그러한 行動에 대하여 더 自身을 갖고 健全한 性格으로 길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現在와 같이 價値指向的인 養育方式보다 規範指向的 養育方式을 강요할 경우 여기에서는 결국 規範에 充實하고 예의바른 帰屬主義的 人間型이 家族으로부터 길러져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傳統的으로 韓國의 家族은 아이들이 각자 나름대로 生

의 目標을 追求하고 理想的 價値를 창조하려는 價値指向的 性格型 보다는 既存의 社会秩序와 父母의 權威를 尊重하게 하려는 規範指向的 性格型을 더 많이 길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급속한 社会變動過程속에 놓인 오늘날 韓国家族은 이러한 傳統的인 養育方式에서 漸次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表2에서 유추할 수 있으며 또한 子女層들도 점차로 家族의 影響을 벗어나면서 社会環境의 影響을 많이 받게 된다는 面을 찾아 볼 수 있다.

<表 2> 子女教育의 目的

구 분	전 체	대 도시	중소 도시	농 촌
① 지혜롭고 창의력 있는 사람	40.8	47.5	38.0	21.0
② 재산과 돈이 많은 사람	13.0	7.4	12.2	33.1
③ 명예나 지위가 높은 사람	16.5	13.4	21.8	20.9
④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 에 충실한 사람	27.7	31.7	28.0	25.0

* “국민의 의식동향조사결과”, 사회기풍순화대책 참고자료 제 1집 (보사부, 1974), P. 30 인용

過去 韓國社会는 大家族制度로서 子女의 教育, 生産的 機能을 모두 担当했었지만 오늘날은 상당히 바뀌고 있다. 教育機能은 學校로, 生産的 機能은 職場으로 移轉되고 가정은 오로지 가족원에게

情緒的・愛情的 結束感을 公高하게 해 주는 役割만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社會構造的 狀況속에서 靑少年들이 과거의 成人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局面에 처해 있다는에서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다.

나. 交 友

그 다음으로 아이들이 점차 成長함에 따라 家族밖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이러한 交友集團속에서 人間性이 길러지게 된다. 어떠한 아이들이 交友集團속에서 인기를 얻고 리더십을 갖느냐가 意識構造形成에 영향을 준다. 즉 친구들이 좋아하는 基準을 直接, 間接으로 따르기 마련이고 그러한 過程에서 人間型이 길러져 나오고 社會的 意識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關係는 그대로 學校生活에까지 연장된다. 실제로 交友關係는 이웃간의 交友集團과 學校에서의 그것과가 중첩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交友集團이 영향끼치는 條件은 서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아이들의 世界에서 인기있는 型은 ① 運動 잘하는 아이, ② 공부 잘하는 아이, ③ 社交性이 있는 아이들이다.

그러나 韓國社會의 경우에는 점차 社交性이 있는 아이가 아이들 世界에서 頭角을 나타내고 인기를 얻는 標準型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社交能力이 社會生活에서 매우 重要하다는 韓國的 現實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

여기서 靑少年世界에서는 소위 近代的 人間關係가 강조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남의 기분을 맞추어 주고 새로운 소식을 수시로 전하고 남과 어울려 잘 놀 줄 아는 아이가 標準型이 되면 그것은 靑少年意識構造의 基底를 이루는 要素로서 정착하고 만다.

그러나 交友集團에서 要求되는 近代的 性格은 西歐式 意味의 近代的인 것만은 아니다. 韓國的인 義理나 正義를 근간으로 하는 交互的 相互作用이 전제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선 西歐式人間關係와 東洋的 人間關係의 混合型이라고 해도 좋은 면이 混在되고 있는 것이다.(5)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오늘날 韓國社會에서 家族과 交友의 어느 편이 社會化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느냐의 問題이다. 물론 農村은 여전히 交友보다 家族의 영향이 크지만 都市는 점차 家族보다는 交友의 영향이 커져 가고 있다. 理論的 面에서 보면 사람은 家族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前近代的 性格이 강해지고 交友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近代的 性格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韓國 全體的인 입장에서는 이 두가지 영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는 韓國靑少年의 의식속에 前近代性과 近代性이 混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70年代부터 본격화된 韓國社會의 급속한 産業化는 都市人口의 성장을 재촉하고 이에 따른 都市化現象은 급기야 家族의 社會統制力을 弱化시키고 있다.

즉 都市化에 따른 가족통제력의 약화는 상대적으로 交友關係와 매스컴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면에서 보면 앞으로 韓國靑少年의 의식구조형성의 결정적 요인은 점차적으로 家族으로부터 交友나 매스 미디어의 영향으로 대체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靑少年에게 제시되는 매스. 미디어의 性格과 交友關係의 특성에 따라 靑少年의 의식의 方向이 크게 좌우되고 있다 하겠다.

다. 北韓의 탁아소와 유치원

家族이 社會化의 第1次的 主体라는 것은 체제의 差異를 초월한 보편적 현상이다. 또 社會化의 최초단계에는 원초적 구조가 中心的 重要성을 가지지만 아동이 점점 成長함에 따라 公式的인 二次的 構造의 역할이 증가하기 마련이라는 것도 共通된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社會化 初期段階에 있는 아동들에 있어서까지도 原初的構造와 2차적구조를 동시에 동원하고 이 양자에 의해 意圖的 社會化를 시도하여 왔다 하겠다. 즉 北傀는 家族을 「社會主義革命理論의 실습장이며 生産의 最低單位」로 규정하는가 하면 傳統的 家族文化에 대해서는 非共產的 保守體制의 遺制라고 단정함으로써 그 파피에 앞장 섰던 것이다. 이에 傳統的 家族의 유교적 관습, 가족적 位階秩序, 결혼관, 男女觀 등은 價值操作의 渦中에서 그 빛을 잃어버린 것이다. 물론 家族制度의 파피에 있

어 무엇보다도 큰 구실을 한 것은 生産手段의 集團化를 통하여 가족중심의 經濟的 바탕을 깨트려 버린 데 있다. 뿐만 아니라 都市는 물론 農村에서도 集團主義的 生活에 필요한 「農村文化住宅」으로 이주케 하고, 공민증제도·五戶担当制를 강화하는 등 상호감사와 사상검토의 방법을 구사하고 傳統的 家族觀念抹消에 주력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北韓은 社會化媒体 가운데 原初的 기능을 지닌 家族의 역할을 약화 내지는 마비시키고 그 대신 共産黨의 後備隊인 각종社會團體의 조직적 訓練과 상호비판에 의한 集團壓力을 구사하여 共産社會가 提示하는 組織化된 基準에 따라 靑少年들의 意識構造를 주어진 方向으로 劃一化시켜 왔다.

北傀의 경우 특히 人間에 대한 概念規定에 있어서 “후천적,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創造되어 가는 造形的 存在”라는 一元的인 側面을 그들 체제유지 手段으로서 최대한 活用하고 있다는 점을 注視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環境的 條件의 變化, 즉 그 體制維持의 「매카니즘」에 따라 人間性和 價值觀을 의도하는 方向으로 變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때문에 黨과 政權機關은 그들 體制가 要求하는 소위 「主体型的 共産主義者」를 주조할 目標로 「의도적 社會化」(purposive socialization)를 計劃하고 이를 위하여 유아기부터 後世代의 社會化過程에 깊숙이 參與하

고 이를 철저히 統制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社會主義體制下의 「社會主義的 家族」의 概念에서는 子女의 양육을 社會에다 轉移하는 것을 근본조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子女는 그 生父母의 子息이기 이전에 全體社會의 子女, 共產主義의 役軍이 되어야 하며, 家族集團(家庭)은 共黨組織으로 대치시키고 여기에다 公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직접적 統制를 家族에 그대로 適用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들은 生後 4個月부터 母情의 품을 떠나 탁아소에서 集團的 保育規範에 맞추어 政治教育부터 시작하게 되며 특히 北傀의 경우 11年間の “義務教育期間”(5~16歲)을 거치면서 黨의 直接的 統制와 소년단, 「사로청」등 各種 社會團體의 日常的 指導밑에 모든 어린이들을 “金日成이 생각하는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人間”을 형성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統制된 學習과 訓練條件은 成人이 되어 社會에 진출한 年後에도 그대로 存続되고 繼續 강화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엔겔스」에 의하면 「個人은 자기 素質의 全面的 發達의 可能性이 집단 가운데서 비로소 獲得되는 것이며, 個人的 自由는 집단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한다. 北韓은 이러한 論理를 兒童 및 靑少年들의 家族과 學校生活에 침투시키려고 시도한 것이다.

즉 社会化 媒介体 가운데 가장 原初的 機能을 갖고 있는 家族의 役割을 社会团体가 대신하게 하여 組織的 訓練과 集團壓力를 통해, 共產集團이 제시하는 基準에 따라 自動的 人間機械로 主조하고자 피하고 있는 것이다.

즉 社会化 初期段階의 중요성에 비추어 어릴적부터 조직생활에 의한 訓練 및 自己訓練을 兼행함으로써 個人的 行動領域을 극도로 制限시키고 그 반면에 集合体的 規範에 대해서는 全的으로 동조케 하는 集團主義的 폐쇄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北韓은 人間形成의 출발점부터가 家族이라기보다 社会团体가 되고 있다. 그 들은 가족기능의 약화가 學校 및 各種 社会团体的 政治社会化機能을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보강하리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여 北韓은 「젓먹이의 集團化」政策을 더욱 적극적으로 强행하고 있다. 乳兒養育을 가정에서 担当하는 것이 아니라 託兒所의 組織生活속에서 이룩한다는 것을 國家的 基本政策으로 採択하고 실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1976年 6月 「어린이보육교양기본법」이 실행에 옮겨졌다.(6)

즉 “1세~3세 어린이는 탁아소에서, 4~5세 어린이는 유치원에서 키운다”(제45조)라고 규정하고, 학령전 모든 어린이들을 의무적으로 週·月託兒所와 유치원에다 맡기게 하고 「國家와 社会的 指導와 負擔으로」 어린이를 집단수용·양육하는 조치를 兼행한 것

이다. (7)

「어린이保育教養法」은 제1조에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건설의 後備隊이며 代를 이어 革命할 우리 革命事業의 継承者들이다」고 前提하고 「모든 어린이들을 主体型的 革命的인민으로 키우고 여성들을 어린이 키우는 무거운 負擔에서 解放하는 新성한 事業을 실현하며 나라의 社會主義 建設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社會를 革命化·勞動階級化하는 역사적 偉業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法은 抗日革命傳統을 이어받은 法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創造적으로 적용한 金日成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아 공산주의 革命偉業의 믿음직한 継承者, 영예로운 革命家로 保育教養하는 法임을 그 기본 원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北傀는 이 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세살때 버릇이 여든살까지 간다」는 속담을 인용하여 「우리는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革命的으로 교양하는데 제일 큰 的의를 부여함과 同時に 集團生活를 통해 어린이들속에서 組織生活기풍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키워주고 있으며 共產主義의 社會制度가 좋고 資本主義가 나쁘다는 것을 가리는 意識을 어린시절부터 형성시켜야 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린이保育制度는 幼兒時節부터 철저한 집단적 사상교육을 實施하고 家事從事者들의 勞動力까지 最大限으로 動員할 수 있는 二重效果를 도모하는 데에 그 숨은 底意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이 法의 특징을 보면,

- ① 医療要員에 대한 活用 및 保育施設의 개선향상에 主안점을 둠으로써 自來공급 및 補助體系에 結合이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고,
- ② 保育期間中 소위 共產主義的 品性教養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幼兒들에 대한 人間改造事業을 制度化시켰고,
- ③ 특히 산아제한을 실시해 온 北傀가 雙生兒 이상의 母性들에게 特惠規定을 明示하고 있는 점 등이다.

이로써 家族的 분위기의 영향과 父母의 子女養育機能은 한층 더 弱化되고 父母와 子息間의 關係가 더욱 소원화되면서, 어린이들의 黨과 政權機關에 대한 依속관계는 상대적으로 더욱 緊密化되는 결과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의 社會化에 대한 黨的指導와 統制는 劃一的 價値의 주입을 가일층 유도하게 만든 셈이다. (表 3 參照)

따라서 北韓의 경우 初期社會化過程에 있어서 家族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副次的인 것으로 弱化되고 그 반면에 社會化의 기능이 託兒所·유치원·學校 및 黨的 外廓集團에게 分担되고 黨的 關与가

보다 절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表 3>

託 児 所 現 況

(單位: 개)

区 分 \ 年 度	1953	1960	1964	1968	1971
탁아소수	64	7,626	11,043	18,592	23,251
탁아소침대수	2,165	394,489	787,504	968,806	

출처: 北韓全書 中卷 (극동문제연구소, 1974), 189面

라. 組織生活

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형성에 있어서 또 하나의 道具는 「소년단」, 「사로청」, 「여맹」, 「붉은청년근위대」등 靑少年集團의 組織網이다. 이러한 각종 사회단체조직 역시 共産黨의 直接的인 監視와 統制를 받으며 共産黨員이 그 主導權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共産黨의 정치노선을 실천하며 선전하는 黨의 後備隊의 구실이 그 全部이다. (8)

北韓靑少年들은 각급학교를 중심으로 이러한 성격을 지닌 여러 個의 社會團體에 중첩되어 動員된다.

學生들은 教室內에서 敎員에 의한 思想敎育만이 아니라 學園內의 社會團體를 통한 組織生活에서도 思想敎養을 받는다. 9~13歲의 少年은 「少年團」, 14~17歲靑年은 「社勞靑」에 義務的으로 加入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北韓 全靑年의 99.9%에 해당하는 약 271만이 가맹되어 있다. 「社勞靑」은 共産黨의 後備隊 내지 豫備訓練所이고 「少年團」은 「社勞靑」의 산하단체로써 靑少年의 의식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直接的으로 행사하게 된다. 이것은 1959年 敎育文化相이 學生들을 「黨과 革命을 위해서는 불가운데 불가운대를 가리지 않는 열렬한 戰士로서 養成하는 學校事業에서 第1次的인 課題」라고 못박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北韓의 政治思想敎育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9)

金日成이 靑少年들에게 提示하고 있는 項目에는 政治社會化의 方向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10) 즉

- ① 少年團員들은 少年團組織生活를 잘해야 한다.
- ② 少年團員들은 學校生活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 ③ 少年團員들은 社會主義制度를 열렬히 사랑하며 나라와 社會의 財産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 ④ 少年團員들은 革命의 원수를 끝없이 미워하며 그를 反對하여 용감히 싸워야 한다.
- ⑤ 少年團員들은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 힘쓰는 集團主義 精神를 가져야 한다.
- ⑥ 少年團員들은 아름다운 共產主義的 道德品性을 가져야 한다.
- ⑦ 少年團員들은 勞動을 사랑하며 나라의 社會主義建設을 힘껏 도와야 한다.
- ⑧ 少年團員들은 社會政治活動을 잘하여야 한다.
- ⑨ 少年團員들은 美帝와 그 앞잡이를 反對하는 南朝鮮人民들과 少年들의 鬪爭을 支持하며 祖國統一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 ⑩ 少年團員들은 世界 여러나라 少年들과의 國際主義的 親善團結을 強化해야 한다.

이와 같이 北韓의 靑少年教育目標는 첫째로 「革命傳統」이고, 「착취계급」 「美帝國主義」 「資本主義」라는 「원수를 미워하는」 「階級鬪爭」의식이 철저히 주입되고 있으며 특히 「革命傳統」敎養에 있어 「抗日말치산鬪爭」敎育과 金日成英雄化는 최근에 와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學生들이 「黨이 생각하는데로 생각하며 말하며 行動」하는 人間,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희생하는 人間으로 만들려 하며 個人主義와 利己主義는 철저히 배격한다. 그 이유는 個人主義와 利己主義는 集團主義的 所有物 公高화 하는데 장애로 되며 包括的인 共產主義的 全人民的 所有物 創設하려는 그들의 「前進運動을 阻害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1) 또한 「노동애호」를 강조하는 것은 所有欲에 기반을 두지 않는 體制內에서 勞動에의 動機와 意味를 부여해야 할 必要性 때문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勞動을 「自己 自身과 동시에 全體人民을 위한, 全國家를 위한 勞動」으로 간주하도록 教養시키고 있다. (12)

그리고 「社勞靑」의 모든 가입자는 公산주의교양, 金日성우상화 교양 (革命傳統教養, 唯一思想教養 등)을 받으며 共產黨에 충성을 다 하여야 하며 同盟의 규율을 준수해야 하는 義務를 짊어진다. 非黨員인 者도 「社勞靑」의 조직활동을 통하여 共產黨앞에 충성을 다 바쳐야 함은 물론이다.

「社勞靑」의 社會化機能에 있어서 活動目標를 간추려 보면 ① 共產主義建設의 交代者, ② 청년들을 黨의 思想體系로 무장시키는 역할, ③ 公산주의적 도덕교양, ④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열성적 전개 등이 포함된다.

이와같이 「社勞靑」은 黨의 戰鬪的 後備隊로서 그가 가진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때문에 北韓의 젊은 世代들은 「社勞靑」의 활동을 대단히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社勞靑」간부들의 영향력은 대단히 큰 것이다. 金日成은 「共產政權을 유지하고 社會主義制度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南朝鮮에서 民族解放運動을 완수하는 것은 朝鮮 靑年들의 最大의 民族的 과업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社 勞靑」이 앞장서서 젊은이들을 물고 나가야 된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데에서도 그 意義를 짐작할 수 있다. (13)

그뿐 아니라 北韓社會에 있어서 上昇的階層移動의 결정적 계기는 黨員이 되는 길이며 共產黨員이 되자면 「社勞靑」의 추천과 「社勞靑」 간부의 입당보증서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젊은 세대에 대한 그의 統制力은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대학교에는 「社勞靑委員會」가 구성되어 있고 「大學社勞靑委員長」은 「社勞靑中央委員會」에서 파견되며, 「高等學校社勞靑委員長」은 「道社勞靑」에서 파견된 專任 일꾼이다. 이들은 敎員이 아니며 學校長의 行政的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大學生 秘書」와 敎員을 兼하고 있는 黨秘書(고등학교의 경우)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大學敎授들도 「社勞靑」간부의 눈치를 살피야 할 정도로 「社勞靑」의 권한은 대단하다. 그리고 人民學校, 高中學校에는 黨員인 「少年團指導敎員」이 있어서 교내 「少年團」을 指導한다.

이러한 지도체통밑에서 「社勞靑」, 「少年團」은 曜日別計劃에 의거하여 매일 1회이상의 「社勞靑」會議를 비롯하여 사회봉사의 날(청소, 미화작업, 위생검사, 당의 정치해설 등), 체육의 날, 문화의 날 등의 행사를 주관하며, 심지어는 自習에 이르기까지 放課이후, 수업이외의 일체의 단체활동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나아가 靑少年學生들의 私生活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가한다. 이

외에도 각종 토론활동, 전학, 체육대회, 영화, 연주관람, 혁명전적지답사, 강연회, 좌담회 등 무수한 사회행사에 動員되어 政治訓練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조직활동을 통하여 國家, 黨, 金日成에 충성하는 一元的 習慣을 길들이려는 것이다.

그리고 學生이 卒業을 하고 社會에 進出해도 各種 組織生活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들은 「社勞育」 「女性同盟」에 계속 가입하거나 「職業同盟」에 가입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社會團體, 즉 「黨과 大衆과의 연계를 보전하는 引轉帶(벨트)로서의 勤勞團體」들은 「黨의 믿음직한 幫助者이며 後備隊이며 이 團體들은 自己隊列內에서 黨的思想體系를 確立하며 勤勞大衆을 黨주위에 集結시키고 그들을 黨政策實現에 組織動員」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自由陣營에서 볼 수 있는 勞動組合, 協同組合, 青年團體, 學校, 婦女團體 등 모든 自發的 結社體가 북한에 있어서는 모두 國家組織속에 흡수된다. 그리하여 國家가 모든 集團을 總括하는 유일한 包括集團이 되고 여타의 集團들은 이 속에 포섭되어 일정한 限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規制하고 있다. 즉 國家는 각기 집단성원에게 同族이나 親友에 대한 忠誠이상의 것을 바치기를 요구한다. 그뿐만아니라 각종집단이나 組織은 「革命家로서의 共產主義的 새 人間」을 만들어 내고 키우기 위하여는 集團學習의 方法을 公辦的으로 채용하고 있다. 自己批判, 集團討論, 集團決定의 形式으로 말미암아 個人的 要素가 抑壓되고 集團的 同調만이 권장

북한에 비하여 한국청소년들은 自發的 參與와 健全한 人格陶冶에서 그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 근원하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14) 즉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맘을 귀히 여겨 옹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①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②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④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靑少年團體들의 활동은 그동안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듭하여 왔다. 1975年現在 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에 加入된 단체는 23個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65년에 15個團體로 시작되어 1968년에 18個, 1969년에 19個, 1972년에 20個, 1973년에 22個團體에서 추가된 것이다. (15) 이들 각종 靑少年團體의 基本的인 理念과 目標는 靑少年健全育성이라는 점에 統一하고 있으며 회원수와 활동상황은 表 4 와 같다.

<表 4 >

青少年团体와 主要活動

(1975)

단 체	사 업 목 적	주 요 활 동	회원수
대한여자기 독교청년회 연합회 (YWCA)	젊은여성들로 하여금 온 인류는 한 형제됨을 인 증케하고 예수의 교훈을 실천함.	1. 전국대회 2. 여름캠프 3. 봉사활동 4. 지도자훈련	268,600
대한기독교 청년회 (YMCA)	巴里基準을 토대로하여 조직된 기독교청년회의 단결과 발전을 도모함.	1. 대학생 봉사 2. 생활문화운동 3. 각종시민논단개최	21,579
대한적십자 사청년부 (JRC)	그룹활동을 통하여 적십 자의 인도주의와 평화애 호정신을 함양시킴.	1. 국제청소년 캠프 2. 농촌봉사 3. 수련 4. 헌혈캠페인	153,872
한국「보이 스카웃」연 맹	품성도야, 체력증진, 기능 체득, 사회봉사등으로 국 가발전에 공헌하고 세계 인류의 친선증진에 기여	1. 전국훈련대회 2. 하계봉사활동 3. 연장야영대회	151,279
한국질스카 웃연맹	국가관이 투철한 국민으 로서의 양식과 자질향상, 유용한 기능체득, 사회봉 사, 국제우애를 목적	1. 지도자 양성 2. 하계 봉사 캠핑 3. 일선장병위문	61,995

단 체	사 업 목 적	주 요 활 동	회 원 수
한국불교청 년회	인격도야, 가치관확립, 인 도주의에 입각한 濟世국 민운동, 새마을운동	1. 수련대회, 지도자 세미나 2. 교양법회 3. 농어촌돕기 4. 불교문화재수호운동	16,573
한국카톨릭 학생 협의회		1. 학생지도자훈련 2. 학생대회, 체육대회 3. 월례강좌 4. 성지순례	25,656
한국카톨릭 노동청년회 (JOC)	일상의 현실속에서 복음 을 전하며 노동사회를 재건하고 노동자의 생활 을 변화시킴.	1. 훈련회, 강연회 2. 근로청소년야간학교 3. 전국지도자훈련 4. 근로자실태조사실시	30,000
한국 BBS 중앙연맹	비행소년과 불우소년에 대한 義兒弟맺기운동	1. 시·도순회 캠페인 2. 하천부지개간 3. 전국지도자세미나	40,525
세계도덕재 무장한국본 부 (MRA)	인간성의 변화를 통하여 인류의 융합과 세계평화 를 이룩	1. 전국 MRA 대회 2. 훈련대회 3. 국제회의 대표 파 견	27,500

단 체	사 업 목 적	주 요 활 동	회 원 수
한국 4-H 연 맹	자주적 4-H 활동을 지도 육성하여 새 시대 감각에 맞는 제 2 세 국민이 되고 새마을운동의 역군이 됨	1. 중앙경진대회 2. 4-H 국제기술교환 3. 수련대회 4. 봉사활동	635,365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	U. N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에 입각하여 청소년단체의 상호연락과 협조를 도모하 여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기여	1. 청소년지도자훈련 2. 농어촌봉사 3. 국제회의 파견 4. 청소년문제연구 세 미나	1,464,384
기 타 계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 興士團 ○ 아시아자유청년연맹한국위 원회 27 단체	○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 ○ 을곡향약회 ○ 서울청소년선도협의회 등	

※ 靑少年白書 72, pp.265-269 및 靑少年白書 75, pp.310-312

참조 작성

여기에서 보면 韓國에 있어서 각종 靑少年團體는 각각 설립목적과 理念에 따라 活動內容을 달리하고 있으면서도 그 주된 方向에 있어서는 어떤 一致點을 발견할 수 있다. 즉 會員들의 訓練과 敎養敎育 및 社會奉仕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는 모든 靑少年團體가 一致하고 있다. 따라서 각 단체별 계획에 따라 수시로 회원과 그 指導者의 敎育訓練活動을 전개한다. 이러한 靑少年團體들의 봉사활동중 대표적인 것은 매년 實施하고 있는 農漁村奉仕活動등이다.

그동안 韓國에서는 농어촌의 相對的 落後性을 克服하기 위한 새 마을運動이 거족적 과제가 되어 있기때문에 團體活動 역시 이러한 분야에서 그 봉사의 영역을 設定했고 비록 단기적이고 제한된 지역에서의 활동이긴 하지만 會員들의 自己修養이나 농어촌 開發意慾의 유발등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靑少年團體의 社會奉仕를 세분하여 보면 無醫村에서의 醫療奉仕活動과 각종근로봉사 및 啓蒙活動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큰 規模의 活動은 國際交流事業으로 「걸스카웃」과 「보이스카웃」에서 年例的으로 개최하는 「워크캠프」나 「잼보리」大會를 비롯하여 靑少年海外派遣 및 기술연수과견등의 國際交流・奉仕活動事業이 현저하며 政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韓國의 각종靑소년단체들의 活動은 북피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 靑少年社會團體의 영향력과 그것이 주는 集團效果에 있어서도 양자간에 큰 差異가 있음을 전

제해 두고자 한다.

마. 学 校

社会化의 媒介機關은 아동들의 成長段階에 따라 2次的 構造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면서 交友關係라든가 學校가 前面에 나서게 된다. 즉 6~18세 靑少年을 다루는 公式的 社会化機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學校이다. 이런 면에서 靑少年의 의식구조형성에 있어서 學校教育을 매개로한 諸效果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韓國은 靑少年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學校에 있어서의 指導를 대략 다음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16) 첫째 學生의 能力과 적성에 맞는 教育方法을 선택 실시한다. 특히 學生들의 生活指導와 進路指導에 관해서는 그의 생활태도와 能力, 適性에 상응한 效果있는 指導를 할 수 있도록 生活指導擔當教師와 職業指導教師를 양성하여 그들의 適正配置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教師와 學生간의 人間關係를 깊게, 그리고 원활하게 하는 個別指導를 강화함으로써 人間的인 지도방법을 강조한다. 세계 道德觀, 價值觀에 관해서는 바른 認識과 態度를 가질 수 있도록 道德教育을 충실히 하고 아울러 國家觀에 관한 反共教育도 강화하고 있으며, 넷째 思春期에 있어서의 純潔教育에 관해서도 充分히 配慮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北韓에 있어서 學校敎育은 共產黨의 金밀한 統制下에 운영된다. 黨은 學校로 하여금 公式的으로 승인된 價值만을 淸소년에게 전달하게 한다. Count에 의하면 「共產社會의 學校는 단지 人們들에게 敎育을 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金보된 科學的 事實과 煇納에 근거해서 젊은 世代의 意識가운데 公산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 世界觀으로 學生의 思想을 固着시키고, 애국심과 公산주의적 사상의 精神에 의해 學生을 양육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17) 그런데 이러한 敎育방침은 단지 抽象的으로 主題를 提唱·朗誦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國民生活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지도·감독함으로써 그 실현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 대한 黨的統制가 철두철미 행사된다. 특히 政治社會化는 學校體系의 중심적 과업의 하나이다. 모든 學校에 대해 強制的인 敎科計劃을 수립하고 劃一的 敎科書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敎授法까지도 命令·指示한다.

북한의 學校敎育은 公산주의 社會建設에 필요한 人間의 育成과 公산체제에 同化·適應할 수 있는 人間에로의 改造를 目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北傀憲法 第39條에 의하면 「國家는 社會主義 敎育學의 原理를 具現하여 後代들을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鬭爭하는 堅決한 革命家로 智·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 新 人間으로 키운다.」는 敎育目標를 設定하고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金日成은 「社會主義 敎育學의 5大原則」을 주장하고 있다. 즉

① 黨의 唯一思想體系確立의 원칙, ② 黨派性·階級性의 원칙,

③ 主体確立의 원칙, ④ 이론과 실천의 통일원칙, ⑤ 革命化·勞動階級化의 원칙 등을 내세워 모든 教育政策은 이 범주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8)

그리고 이러한 目標아래 실시되는 教育의 內容은 各급학교의 教科書가 準據의 基準이 된다. 北韓教科書를 內容分析한 資料에 의하면 ① 김일성우상화, ②反美·反日思想, ③革命傳統教育, ④集團主義教育, ⑤北韓體制의 우월성 등이 주된 內容이다. (19) 이러한 內容을 學校授業과 革命傳統學習時間을 통하여 강의하거나 實際勞動을 통한 思想教育을 시도하기도 한다. 한편 課外活動인 '社勞育', '사상검토회'에서도 위의 內容이 反復되어 주입된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以上과 같이 政治的 方向에 대한 學校의 無條件的인 服從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더 效果的으로 北韓體制의 規範에 社會化되는 결과물 기대한 것이다. 즉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필요한 機械的 人間의 養成과 金日成體制에 向和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全人民의 革命化」, 「全人民의 勞動階級化」, 「全人民의 共產化」를 시도해 온 것이다. 이렇게 하여 學校는 共產黨이 만들어 놓은 틀속으로 靑少年學生들을 몰아 넣고 黨의 의지대로 의식하고 行動하는 人間을 量産하고 있다 하겠다.

바. 매스·미디어의 役割

이미 본 바와같이 少年~靑少年水準에 있어서 社会化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学校이었다. 그에 비해서 靑年~成年水準에서 社会意識을 注入하는데 가장 크게 의존하는 媒介手段은 매스·미디어라 할 수 있다.

近代的 權力の 유지강화가 「매스컴」의 기능에 의한 설득·조작과 연관되고 있다는 것은 一般화된 견해의 하나이다. 특히 텔레비전, 라디오, 新聞, 雜誌, 서적, 영화, 연극 및 展示的 芸術등은 靑年水準의 社会化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役割을 행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에는 매스 미디어가 靑少年들의 의식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1) 北 韓

북한에 있어 靑少年의 의식구조를 統制하고 共產主義的 價值觀을 함양하는 데는 이상의 学校教育, 团体生活 이외에도 매스 미디어와 예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北韓社会에서는 모든 「매스 미디어」를 國家가 独占하고 이를 統制한다. 매스컴의 独占은 民間의 通信通路를 切断함으로써 反對集團形成의 可能性을 봉쇄할뿐더러 體制維持에 해로운 情報源을 차단함으로써 反對的 態度發生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社会教育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수 있기때문에 體制維持와 社会生活의 規制에 이로운 社会風土를 一方的으로 操作할 수가

있다. (20)

따라서 共產治下의 新聞의 機能은 資本主義社會와는 매우 다르다. 에컨대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共產社會의 新聞은 集團的 선전자이며, 집단적 선동자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組織者로서 정치사상적 무기, 思想敎化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擔當한다. 北韓에서도 新聞을 「說服과 解說의 方法으로 大衆을 動員하는 強力한 武器」라고 規定하고 (21) 있는 것으로 보아 黨에 대한 무한한 忠誠과 「党性」을 벗어난 新聞은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그들의 關心은 모든 매스 미디어가 否定的 政治社會化의 機關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系統的 組織網을 動員하여 事前的으로 事後的으로 또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多面的 統制를 가한다.

따라서 신문·방송의 매체가 지니는 비판의 기능은 조금도 없다. 그때문에 政治社會化의 主題에 대한 一方的 주입만이 가능하다. (22) 즉 共產新聞의 報道·論說에서는 客觀性보다는 党性을, 사실보다는 이데올로기적 眞實性을, 記者의 創意力보다는 黨의 指導를, 速報性보다는 敎養面의 能動性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記者는 黨의 信賴가 두터울 뿐 아니라 폭로 기사를 통한 「過誤를 범한 동무들」에 대한 조치도 할 수 있다. 記者는 黨的 統制와 大衆動員의 前衛的 役割을 맡고 있는 셈이 된다.

다시말하면 매스 미디어를 統制하는 「宣傳煽動部」에서는 각 매스 미디어에 指示하는 下向式 傳達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大衆의

反도 동시에 수집하여 党中央에 報告하는 一種의 輿論蒐集機能도 담당한다. 또한 매스 미디어를 통한 宣傳·煽動뿐 아니라 敎員·記者·藝術人 등을 「煽動員·工作員」이라 하여 口頭說服과 傳達方式도 사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北韓新聞은 소위 「肯定的 模範의 一般化의 原則」에 입각하여 共產黨의 利益과 金日成우상화에 일익이 되는 事實과 사건들만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文學藝術에서도 이를 靑少年의 人格과 意識구조形成에 막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여 思想敎育의 重要한 手段으로 使用하며 黨政策 舍理化에 活用하고 있다. (23) 文學藝術에 대한 政策은 첫째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입각한 創作活動, 둘째 党性·階級性·人民性原則, 셋째 民族文化 遺産의 繼承과 발전, 넷째 社會主義的 愛國主義敎養, 다섯째 예술의 대중화, 여섯째 작품의 計劃生産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이는 純粹藝術을 부정한 大衆操作의 媒로서 역할만을 강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른바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입각하여 「形式은 民族的이내 內容은 社會主義的」인 作品만을 許容하며 文藝活動에 있어서 党性, 人民性, 階級性이 강조되고 藝術의 思想性이 藝術性보다 더욱 重要視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들의 見解에 따르면 物質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共產主義를 建設하기 위한 群衆의 鬪爭努力과 그 努力의 結果로 이루어진 結果」이며 精神的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黨에 무한히 忠誠하고 黨의 命命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自己生命을 草芥와 같이 바쳐서라도 수행하려는 共產主義的 鬪志」라고

규정짓고 있다. 특히 黨의 出版計劃에 맞추어 작품내용 및 완성일자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各種 文芸活動에 대한 세세한 內容分析을 하지 않더라도 北韓의 모든 創作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黨이 철저하게 人間의 生活過程을 장악하고 의식구조形成의 手段들을 独占하고 있으므로 北韓에서 成長한 世代는 복귀가 제시한 극히 制限된 劃一的인 生活領域을 벗어 날 수 없고 이에 따라 의식체제 역시 그 범위를 초월하지 못한 퇴영적 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매스 미디어의 独占 및 文化藝術의 內容과 靑少年層의 정치적 行動間에 正常關係가 成立할 것이라는 論理는 너무나 單線的인 판단이라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政治文化와 國民性的의 差異가 이러한 견해에 反對하기 때문이다. 즉 매스 미디어에 대한 統制의 強度와 범위에 따라 兩者間의 關係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劃一的인 價値의 體制肯定的 提示만을 반복하는 北韓의 매스-컴 統制는 많은 逆機能的 效果가 예상되는 것이다.

(2) 韓 國

韓國의 매스 미디어는 북한과는 정반대로, 전체적인 면에서 볼때 國民読者의 期待에 부응하여 輿論形成과 善導에 공헌하는 社會의 公器로서 역할하며 나아가 読者의 욕구에 순응하면서도 보다 高次的 欲求開發을 위한 使命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경우는 자율적인 規制原理에 의하여 「매스·미디어」가 制限된 범위내에서 青少年의 思考体系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政府의 一方的 統制보다는 個個人的 선택기준에 의한 效果가 증시된다. 물론 이에 따른 逆效果도 하나의 社会問題로서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서 韓國 青少年의 의식구조형성과정에서 매스·미디어가 주는 효과를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청소년의식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어느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즉

「최근 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당신의 의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어느 것입니까」라는 質問에 대해서 <表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²⁴⁾

表5에 의하면 「TV, 라디오의 내용」이 3割, 「신문, 잡지」와 「선생」의 比率이 각각 2割, 그리고 「동료나 친구의 의견」이 1割을 차지하여 매스컴의 영향이 對人關係의 영향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報道内容도 점차로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學校에서 배우는 敎科内容이나 매스·미디어에 담겨지는 情報内容이 韓國的이라기 보다 外來文化的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음성적으로 西歐的인 감각을 고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西歐의 技術文化가 갖는 能率性을 강조하는 면도 있지만 고도로 발달된 資本主義의 消費文化까지도 흡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西歐的인 文化内容은 엄격히 말해서 借用된 模倣文化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지만 韓國的 現實과는 유리되고 韓國

<表 5 >

態度形成의 媒介體

(%)

항 목	전 국	性 男	別 女	地 大 都 市	城 別 都 市	邑 面
TV, 라디오의 내용	29.7	29.6	29.9	24.2	31.8	32.4
신문, 잡지 내용	21.8	25.8	17.8	27.2	20.6	18.3
일반서적 내용	6.3	5.3	7.3	6.5	5.8	6.7
학교선생의 의견	19.3	17.7	20.8	18.8	21.3	17.6
동료, 친구의 의견	11.0	10.7	11.4	11.9	9.5	11.9
부모, 형제, 친척 의견	6.1	5.9	6.4	5.5	6.1	6.7
문화인, 학자 의견	4.1	3.9	4.2	4.3	3.7	4.3
무 응 답	1.7	1.1	2.2	1.6	1.2	2.1

※ 청소년백서 75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1975), P.101
인용 작성

의 그것과는 異質性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文化는 靑少年의 意識을 歪曲하는데 作用하고 있는 것같이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實生活과 一致하지 않으면서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標準的 價值인 것처럼 強要되고 있기때문에 사람들은 表面的으로라도 받아들여서 모두 그것을 채택하고 있는 양으로 행세하려 들기때문이다. 여기서 靑少年의 實用主義的 性格, 消費志向的 性格이 부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5)

이렇게 보면 오늘날 靑少年의 意識構造에는 많은 異質的 要素가 복합적으로 果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家庭속의 人間關係는 傳統的・前近代의 性格을 배양하고 있고, 交友間의 人間關係에서는 前近代의인 것과 近代의인 혼합형으로서의 社交的 性格을 길러 내고 있고, 그리고 精神文化를 공급하는 學校나 매스・미디어는 다분히 西歐的인 現代的 價值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靑少年속에는 前近代性, 近代性, 그리고 現代性까지 모두를 한꺼번에 混有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만약 이것들이 어떤 體系를 가지고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體系性이 없을 경우, 여기에는 狀況에 따라 각기 다른 人間關係를 취하게 되는 착잡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韓國的인 評價基準으로서 그대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즉 사람은 能力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야만 하는 것이다. 아무리 能力이 있어도 人間性이 좋지 않으면 출세하지 못한다. 여가서 能力이란 近代的인 의미에서의 그것이고 사람이 좋다는 것은 前近代的인 의미에서의 人間性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意識構造가 내포하고 있는 問題는 다음 調査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職場을 求하려 다니는 두 사람중 하나는 비상한 能力과 경쟁심을 갖고 있고 또 보다 나은 직장이 있으면 移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能力은 좀 못하나 겸손하고 만곳에 보다 나은 자리가 있어도 移動하려 하지 않

는다면 누구를 쓰겠습니까?」라는 물음에 <表 6>의 응답을 얻었다. 農民, 企業人, 教授 등 모두가 圧倒的으로 能力있고 移動的 人間보다 겸손하고 移動性이 없는 사람에게 好意的 反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6)

<表 6 >

韓 國 人 的 雇 傭 觀

人口層 \ 응답	겸손하고 이동하지 않는 사람	능력있고 이동하려는 사람	무응답	계	피조사자수
농 민	84.1	15.6	0.3	100.0	352
기 업 인	86.2	13.8	0.0	100.0	261
교 수	89.3	10.7	0.0	100.0	392

※ 洪承稷, 韓國人的 價值觀研究 (1969), P.99

즉 創造的 能力보다는 겸손을 優位視하는 態度는 韓國인들이 현실적으로 異時代的 가치관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權威主義的 傳統性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現象은 북괴의 소위 「肯定的機範의 一般化原則」,
즉 共産黨의 決定과 「教示」에 대한 住民의 遵從수범만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黨에 利益이 되면 大書特筆하고 不利한 것은 아예 觸
及하지 않는 북괴와는 對照的 效果를 나타내고 있다.

2. 社会化의 目標과 學習方法

다음은 이상과 같은 諸社会化媒体를 통하여 青少年에게 어떠한 價値를 注入하려 하며 어떠한 意識構造를 형성시키려고 하는가를 比較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가. 韓國의 社会化目標과 學習方法

한마디로 韓國에 있어서 青少年 社会化의 궁극적 目的은 건전한 「民主市民」을 양성하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韓國의 教育目的은 「國民教育憲章」에 반영되고 있는 「教育의 指標」에서 明確히 提示되었다. (27) 즉

- ① 創造의 힘과 開拓의 精神
- ② 協同精神
- ③ 國民精神
- ④ 民主精神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教育法」 第1條를 보면 “教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完成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구비하게 하여 民主國家發展에 奉仕하며 人類共榮의 理想現實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第2條에서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教育方針을 세운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 ① 身體의 健全한 發育과 維持에 必要한 知識과 習性을 기르며

아울러 堅忍不拔의 氣魄을 가지게 한다.

② 愛國愛族의 精神을 길러 國家의 自主獨立을 維持發展하게 하고 나아가 人類平和建設에 寄與하게 한다.

③ 民族의 固有文化를 계승양양하며 나아가 文化의 創造發展에 공헌한다.

④ 真理探究의 精神과 科學的 思考力을 배양하여 創意的 活動과 合理的 生活을 하게 한다.

⑤ 自由를 사랑하고 責任을 尊重하며 信義와 協同과 愛族의 정신으로 調和있는 社會生活을 하게 한다.

⑥ 審美的 情緒를 함양하여 崇高한 藝術을 감상·창작하고 自然의 美를 즐기며 余餘의 時間을 有效히 使用하여 和諧明朗한 生活을 하게 한다.

⑦ 勤儉勞作하고 務實力行하며 有能한 生産者요 현명한 消費者가 되어 건실한 經濟生活을 하게 한다. ”는 것이다.

이것은 自由民主國家에 있어서 教育哲學的 人間觀을 그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인간의 尊嚴性과 目的性, 그리고 個性과 창의성, 합리적 知性과 발전가능성을 소중히 여기며 開放的이고 多元的이며 個性과 능력, 自律的 活動을 尊重하는 社會를 그 理想으로 하는 民主的 價値를 중요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教育學의 理論과 학습방법도 다양하고 신축성을 내포하게 된다.

다른 한편 청소년의 健全育成이란 차원에서 多面的인 善導生活을 병행하고 있다. 한 家庭의 少年에 대한 지도로부터 크게는 國家

的, 社会的 시책에 이르기까지 各계各층의 意圖的이고 계획적인 지도수단을 강구하여 長期的 안목에서 그들의 健전한 身體發達과 情緒醇化 및 참된 民主市民으로서의 자질함양 등의 포괄적 선도 육성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청소년 자신들이 自主性和 開拓精神을 함양하고 투철한 反共精神으로 國論統一에 임하도록 하며 아울러 高尚한 倫理觀과 強인한 體力을 向上 發展시킬 수 있는 새 靑少年像을 定立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靑少年教育의 目標와 靑少年善導의 主要方向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28)

첫째 그것은 健전한 身體的 發達이다. 즉 靑少年期는 급격한 成長을 통하여 人間의 身體的 成熟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充分한 營養섭취와 身體的 訓練을 통하여 健전한 性的 成熟을 조성하고 運動기능을 개발하며 人間의 成長可能性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둘째 情緒의 調和로운 발달을 도모한다. 청소년기는 情緒가 격렬하고 또 不安定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芸術的 情緒의 함양, 클럽活動方式에 의한 協同心의 배양 등 조화된 情緒의 開發을 통하여 社會의 構成要素로서 요구되는 個體의 人格을 完成해 나간다.

셋째 社會性의 開發을 권장한다. 時代가 발전할수록 청소년의 生活空間은 地理적으로나 社會적으로 擴大될뿐만 아니라 時間的 또는 心理적으로 연장 深化된다. 家族關係, 異性關係, 交友關係 등

모든 사회생활면에서 個人과 더불어 잘 調和될 수 있는 社會性的 개발을 통하여 現代生活을 圓滑하고 마찰없이 營위하게끔 한다.

이에 知的, 行動의 發達을 支援한다. 落後性을 극복하고 보다 차원높은 文化向上을 기할 수 있는 길은 人間의 知的 開發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來日에의 기대와 未來指向的 社會의식은 청소년들의 進進한 知的能力을 최대한으로 伸장發達시키는데서 가능하다.

끝으로 未來志向的인 善導手法을 擬한다. 청소년들은 未來志向的인 숨은 問題로 중요시 되어야 하며 透視되어야 한다. 現在의 靑少年이 來日의 成人이 될 때 韓國과 世界사회는 政治, 經濟, 社會, 科學, 道義, 藝術面에서 엄청나게 다른 社會일 것이라는 未來像을 전제로 하여 現實主義的 獨斷을 경계하고 먼 장래를 바라보며 能動的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未來志向的 靑少年 善導方法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靑少年教育은 萬物의 主人으로서의 人間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는 自治的 能力과 잠재능력을 最大限度으로 발전시켜 스스로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營위할 수 있으면서 各자 固有의 方法으로 國家社會의 발전을 위해 寄與할 수 있도록 노력한 다는 것이다.

나. 북한의 社会化目標와 主要價值觀

북한에서 실시하는 靑少年社会化의 궁극적 목적은 「共產主義的 人間」을 造型하는 것이다. (20) 이러한 북괴의 教育目的은 바로 북괴의 독특한 教育觀에서부터 도출된 것이며, 그 教育觀은 또한 그들이 절대불변의 진리로 믿고 있는 唯物論的 世界觀과 人間觀을 토대로 하고 있다.

즉 世界에 客觀적으로 確實히 存在하는 것은 物質이며 人間도 物質에 의하여 支配되는 存在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物質世界 가운데 대표적인 經濟世界는 人間과 社會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世界란 물질적 환경과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경제적 방식 내지 生産方式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의 世界가 人間の 本質과 人間生活의 모든 측면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人間을 有目的的 存在者로써, 그리고 創造的 精神機能者로써, 또한 잠재적 발달 가능성과 自決的 능력의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物質에의 예속자로서 그리고 生産勞動 機能者로서의 도구화된 수단적 가치만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人間觀과 世界觀을 하나의 신앙으로 신봉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人間の 本質, 발달가능성과 잠재능력·자결적능력을 연구하고 그 開發可能性을 타진하여 어떠한 方法으로 그 가능성을 開發할 것인가에 대한 教育學의 연구는 무의미한 것이며 必要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와 反對로 韓國을 포함한 自由民主國家에서는 人間의 尊嚴性和 目的性, 그리고 個性과 發展可能性, 合理的 知性を 소중히 여기며 開放社會, 多元社會, 個性과 능력, 自律的 活動을 尊重하는 社會, 타협과 협동 및 개선을 통하여 발전되는 진보적 社會, 法治的 社會 등을 理想으로 하는 民主的 價値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教育學의 理論도 다양하며 연구를 통하여 문제와 개선점을 찾아야 할 과제도 그만큼 더 많은 것은 이미 본 바와 같다.

그러나 北韓과 같은 公産國家에서는 人間觀과 世界觀이 고정적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眞理"以外的 것을 배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理論은 許容되지 않으며 다른 研究 또한 許容되지 않는다. 북괴가 提示한 唯一한 教育學以外的 意見, 理論, 研究를 提示하는 學者가 있다면 그것은 곧 反動分子로 취급되고 처단될 것이다.

金日成이 창안했다는 社會主義 教育學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며 북괴가 이미 규정해 놓은 教育目的을 어떻게 效果的으로 달성할 것인가를 규명하는 教育方法的 研究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靑少年들을 共產主義的으로 教育시키기 위하여 革命化·勞動階級化하는 것이 社會主義 教育學의 基本原理이다.

북괴에 있어서 人間을 革命化하고 勞動階級化하는 것은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을 위한 合法則的인 要求인 것이다. 社會主義, 共產主義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生産力을 發展시켜 物質的 要素를 「占領」함과 同時에 社會의 모든 成員으로 하여금 革命化하고 勞動者階級化하여 思想的 要素를 「占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革命化하고 勞動階級化하는 것이 共產主義的 의식구조를 형성하는 길이며, 이러한 人間을 育成하는 것이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合法則的인 要求라고 북괴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에 있어서의 社會化는 政治意識의 注入으로 一貫되어 있다. 북괴의 新憲法 第2條를 보면 北傀는 全体人民의 政治思想的 統一을 國家存立의 必須要件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社會化는 國民들의 政治思想的 統一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統制되고 있으며 政治적으로 그것을 몹시 重要な 機能으로 公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北韓에서 政治思想的 統一을 강조한다는 것은 하나의 理念만이 容認되고 있음을 뜻한다. 原則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政治思想 곧 마르크스·레닌主義 이데올로기를 全体國民이 신봉하여 踐지하도록 政策的 原則이 確定되어 있다. (80)

共產主義國家에서는 反對的 이데올로기가 許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는 政治 經濟 宗教 등 어느 국한된 영역이 아니고 人間行動의 전부를 규제하는 광범한 包括性을 지니고 있다. (81)

그것은 바로 國家의 의지이며 누구나 이 原理에 복종토록 강제된다.

北韓에서는 唯一思想이 그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 (82) 北韓에서 社會化와 關聯된 政治路線은 金日成의 연설에 잘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勤勞者들의 階級的 각성을 높이며 그

들을 帝國主義와 地主資本家를 증오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착취와 압박을 당하여 보지 않았고 간고한 革命鬪爭의 시련을 겪지 못한 새 世代들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階級敎養을 특히 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勤勞者들에게 帝國主義의 侵略的 本性,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本質을 철저히 認識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帝國主義를 증오하고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증오하여 그것들을 반대하여 非妥協的으로 鬪爭하도록 하여야 한다. 帝國主義者들과 敵對階級들에 대하여 어떤 환상도 가지지 않고 그들의 侵略策動과 파괴암해책동에 대하여 높은 革命的 경각성을 견지하여 그것을 끊임마다 暴露粉碎할 수 있도록 黨員들과 勤勞者들을 階級的 原則性으로 敎養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83)

한마디로 말하여 勞動階級意識으로 武装한 革命精神을 고취하고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를 敎養하려는 것을 社會化의 主目的으로 규정하고, 社會主義的인 새로운 人間型이 구조되도록 모든 가능한 힘을 철저히 動員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理想的인 人間類型이나 性格構造가 公式的으로 單一化되고 그 基準이 明示되어 있는 것을 特色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逸脫的이고 危險한 思考는 철저히 배격된다. (84) 이것은 北傀의 社會化의 公式的 基準으로 보아도 無妨한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 靑少年을 革命化, 노동계급화하기 위해 어떠한 政治的 價値와 思想을 전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기로 하자.

社会化過程에 있어서 靑少年에게 제시되는 價值內容에는 긍정적인 주제와 부정적인 주제가 포함된다. 前者는 公式的으로 지시된 가치를 지지하고 옹립하는 態度를 강조하는 것이고, 後者는 「배반되는」 가치를 反對하고 타도하는 態度를 강조한다.

긍정적인 價值가운데는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적 道德性의 確立, 愛國心의 고취, 사회주의 국가의 愛好등이며, 부정적 價值에는 反美主義・反日主義・反帝國主義・反民族主義・反個人主義・反스탈린主義등이 포함된다. 특히 北韓에 있어서 긍정적인 主題는 金日成主体思想, 革命傳統, 集團主義, 마르크스・레닌主義, 勞動價值, 不斷前進主義 등이고 부정적인 主題는 反美・反日・反韓思想과 反資本主義・反修正主義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價值들은 그 국가와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각기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北韓에 있어서도 이러한 政治社会化의 主題가 시기에 따라 關心의 變化를 나타내고 있는데 1966年~1972年의 7年間의 로동신문에 보도된 主題別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35)

즉 ① 經濟成就(質的, 量的) ② 金日成思想(主体思想, 唯一思想) ③ 反美思想 ④ 反韓思想 ⑤ 로동당 ⑥ 反日思想 등이다.

여기서 긍정적인 주제로는 政治(勞動黨), 經濟的 기반의 구축과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로서의 金日成思想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적인 主題는 韓國과 美國, 日本을 비난하는 內容이다.

한편 北韓의 教科書에 反映된 社会化기준에 대한 빈도 역시 <表 7>과 같다.

<表 7>

北韓教科書內容의 主題別 頻度

主 題	頻 度					
	國 語	歷 史	自 然	算 數	計	%
共産主義찬양 (긍정적주제)						
1. 共産主義理論	28	41	2	1	72	12
2. 史實 및 事件	14	38	4	-	56	9
3. 國 家	67	63	4	6	140	24
4. 人物 (김일성)	123	51	34		208	36
5. 經濟建設	16	5	19	12	52	9
6. 共産主義意識	3	51	2		56	10
反民主主義 (부정적주제)						
1. 民主主義理論	3	17	1		21	13
2. 史實 및 事件	18	2	1	7	28	18
3. 國家 (反日, 反美)	59		37	3	99	61
4. 人 物	2	10			12	7
5. 實 態	2				2	1

資料：南北教育力量比較 (国土統一院, 1972), P.17 참조

以上과 같은 北韓의 政治社會化主題는 東歐圈과는 상당한 차이
가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불기에스」는 東歐 (알바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東獨, 헝
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에서 發行되는 黨機關紙 50

種類에 대한 主題別 內容分析을 하였는데 北韓에서와 같이 個人에 대한 偶像화나 黨에 대한 集中的인 主題는 없었다 <表 8>고 밝히고 있다.

<表 8> 東歐諸國의 政治社會化에 있어서 主要價值體系

(숫자 : 우선순위)

國家 價値	알바니아	불가리아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	전체 평균
反帝國主義	1	2	3	2	3	7	6	8	2
社會主義建設	2	1	5	1	1	1	3	3	1
社會主義道德性	3	5	6	5	2	4	5	6	3
反個人主義	4	4	4	6	7	5	4	5	5
愛 國 心	5	6	8	8	5	2	1	2	4
反民族主義	6	7	1	4	6	8	8	1	7
反스탈린主義	7	8	7	7	8	3	2	4	8
社會主義國家	8	3	2	3	4	6	7	7	6

* Ivan Volgyes, <<東歐의 政治社會化>> Problems of Communism, 1974, P.52 참조 作成.

다.北韓의 學習 및 訓練方法

일반적으로 국가·社會의 價值體系를 內面化시키고 나아가 規範體系에 同調하게끔하는 社會化方法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기계적, 非主体的 方法이고 다른 하나는 自律的, 主体的 方法일 것이다. 前者는 Freud 式의 初期訓練方法, Pavlov-Skinner 式의 條件反射訓練方法, 그리고 古典的 學習理論(強化理論)에서 제기된 개, 비둘기, 쥐와 같은 動物들에 대한 實驗結果에서 얻어진 동물적인 원시적 學習方法을 가리키고, 後者는 人道的 立場에서 人間의 창의성과 능동성, 인간이 지닌 潛在力과 發展可能性의 개발, 그리고 選擇의 自由를 중시하는 民主的 學習方法을 말한다.

南北韓은 이상 두가지 相反되는 學習方法을 각기 採択하고 있다고 보아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즉 北韓이 기계론적 學習方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한국은 人道主義的이고 自律的인 方法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다음에서 北韓이 採択하고 있는 教育, 訓練方法上的 差異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北傀는 앞에서 열거한 非公式的·公式的인 모든 社會化媒介機關을 총동원, 총조작하여 젊은 世代層을 政治道具로서 구조하는데 큰 關心을 集中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干涉해 왔다. 그러면 그러한 系統化된 社會化媒介體를 토대로 北傀는 어떠한 學習方法論的 原理를 여기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北傀도 다른 共產主義社會와 마찬가지로 基本的으로 共產主義的 學習의 基本原理에 準거하여 젊은 世代를 양육·육성하려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다만 그 適用의 強度와 範圍에 있어서 어떠한 社會보다 철저하게 生活의 全領域에 걸쳐 엄격히 適用시킨다는 면에서 특이하다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北韓에 있어서 教育方法에 관한 理論이나 原理 등은 소련의 教育科学院에서 제시된 것을 거의 모방하다시피 하여 活用하고 있다. 北韓이 蘇聯의 것을 模倣하고 있는 주요 教育方法의 原理는 集團의 原理, 競爭의 原理, 상벌의 原理, 相互監視와 비판의 原理, 自制의 原理 등이다.

이들 원리는 마카렌코 (Makarenko)의 「集團主義教育原理」와 蘇聯의 教育科学院 研究員으로 있는 노비코바 (Novikova)의 「學校에 있어서의 社會主義競爭」⁽⁸⁶⁾ 등에서 잘 說明되고 있다.

教育은 「集團속에서 集團에 의해서, 그리고 集團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前提하고, 規定한 集團規範에 따라 생각하고 行動하도록 集團生活과 活動을 강화하는 것이 集團의 原理이다. 北韓에서도 소련에서와 같은 구호, 「하나를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 「내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내 것이다.」를 즐겨 쓰는 것도 集團主義精神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며, 크고 작은 모든 活動을 集團化하여 集團의 規範속에서만 움직일 수 밖에 없도록 하여 원하는 바대로의 行動을 統制한다. 그리고 모든 活動을 集團別로 競爭시켜 그 結果에 따라 賞罰을 가한다.

競争의 原理는 「한 水準의 葛藤은 높은 水準의 總合에 의하여 해소된다」는 변증법적 唯物論을 토대로 發展시킨 原理라고 하며, 競争을 통하여 갈등을 유발시켜 그 葛藤을 해소하는 努力을 利用하여 원하는 方向으로 行動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그밖에 北韓이 공산주의 世界觀과 「金日成思想을 靑少年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方法으로 사용하고 있는 몇가지 原理에 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이 사용하는 教育方法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嚴格한 賞罰規定에 의한 行動的 統制를 시도하는 방법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들은 人間의 自存的 存在價值와 自決的 能力을 믿지않고 人間을 物質의 一部로 간주하고 외부의 조건과 壓力에 따라 움직이는 機械와 같은 存在로 取扱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方向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壓力을 必須的으로 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파브로프(Pavlov)가 제시한 行動의 條件反射說을 教育의 方法으로 最大限 活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정한 方向으로 行動을 유발하기 위하여 그 方向으로 움직이는 行動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이탈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심한 罰을 가한다. 이러한 賞罰을 가하면서 원하는 方向으로 말하고 活動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반복시키면 그 言行이 條件化된다는 극히 機械論的 行動統制의 方法을 그들 教育方法의 중핵으로 活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들은 行動과 言語의 統制原理를 철저히 준수한다. 즉 靑少年들을 공산주의적 人間型으로 구조하기 위해 靑少年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대해서 항상 말하게 하고 共產主義的으로만 行動하게 하는 方法을 採用한다. 따라서 각종 會議·토론모임·學習會 등 行事が 많은 것이 當然한 귀결이다. 다시 말하면 北韓은 個人的인 思考와 行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박탈하여 오직 共產主義만을 말하고 생각하고 行動하도록 하는 것만이 理想的인 共產主義者를 만드는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靑少年을 組織속에 묶어 놓고 가능한 한 個人的 時間을 모두 박탈하여 集團的 壓力을 活用한다. 이로써 오직 黨과 所屬團體가 요구하는 行動만이 가능한 環境으로 조작한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조직의 統制的 機能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가지 方法이 첨가된다. 그 적극적 方法으로서는 競爭的 環境을 조성한다. 그래서 競爭에 이기기 위해서는 黨이 요구하는 쪽으로만 숨가쁘게 줄달음질 치게 된다. 또 적극적 方法은 組織的 構成員들로 하여금 相互監視케 하여 共產黨이 요구하는 方向에서 이탈하는 者가 있으면 이를 公開的으로 비판토록 하거나 罰을 주어 黨路線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막는 方法이다. 그리고 競爭에서 이기는 者는 公開的으로 상을 주어 더욱 共產主義에로 정진하도록 독려한다.

물론 이와 같은 教化原理는 人間을 根本的으로 環境에 의해 支配되는 不完全한 存在로 보려는 唯物論的 世界觀에서 비롯된 것임

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말이나 行動에 의해 精神이 支配된다」는 唯物論的 人間關係에서 보면 共產主義에 대하여만 계속해서 말하고 行動하도록 하면 그의 정신도 자연히 그에 맞게 共產主義者로 형성된다는 論理이다.

이와 같이 해서 새로운 젊은이들을 「組織의 노예」로서, 또 「조직이란 武器의 部分品」으로서 그 機能을 다할 수 있는 機械的 意識構造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상과 關聯해서 세계로 適用되는 社會化의 學習方法上의 原則은 競爭의 原理이다. 즉 「個人은 스스로 責任질 수 있을 만큼 完全한 存在가 아니다. 재적질하지 않는 한 나태해진다. 人間은 競爭을 통해서만이 쉬지 않고 目標를 向해 달린다」는 論理에 입각한다. 따라서 「천리마 학급운동」, 「학생사회 의 무노동」 등에 있어서 競爭은 학생들을 무자비한 競爭者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극한적인 競爭狀況의 連續的 操作政策은 靑少年들로 하여금 公산주의라든가 金日成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自我批判의 原理이다. 이는 「批判과 自我批判없이 는 자신 의 대열속에 숨어 있는 敵을 發見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蘇聯의 政治理論家 살리코프의 假定에서 出發된 것이다. 公산주의에서 말하는 自我批判이란 스스로 하기보다는 集團으로부터의 強要에 의하여 여러 사람앞에서 公開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自体가 하나의

고통이며 自我不容의 징조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表面上으로 組織에 「充實하려」하는 性向이 支配된다. 또한 自我批判에서 한 말은 그 自身の 行動을 구속하는 힘을 갖게 된다. 이런데서 自我批判은 北韓 靑少年敎化의 강력한 武器로 活用되는 소이가 있다.

다섯째 原理는 相互批判이다. 이것은 自己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批判하는 方法을 통해서 組織으로부터의 이탈을 抑制하고자 意圖한 것이다. 참으로 自我批判과 相互批判은 公産주의의 組織統制를 위한 가장 非人間的 方法이며, 거의 殘惡的인 것이다.

이밖에도 北韓은 承認과 拒否의 原理라든가, 集團爲主의 原理等을 총동원하여 強制함으로써 靑少年의 意識을 철저히 敎化하고 그들을 政治道具로 活用할 수 있는 意識적 바탕을 다지는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겠다.

3. 人間의 兩面性

(人間과 社會와의 關係樣式)

앞에서 본 學習 및 訓練方法의 問題는 人間에 대한 概念規定, 즉 人間觀의 問題와 直接的으로 聯關되어 나오는 結果的 現象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人間의 概念規定 如何에 따라서 訓練方式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예컨대 北韓에서 機械的이고 非主体的 學習方法을 採択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마르크스-레닌의 唯物論的 人間觀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러한 側面에서 人間의 本性에 대한 해석방법과 人間의 本質이 과연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서 南北韓의 意識構造의 특징을 보다 正確하게 유추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人間本性的 正體에 따라서 거기서 배태되는 學習方法의 效果, 즉 意識구조의 양태가 다르게 배양되기 때문이다.

가. 人間의 同調的 適應性的 側面

一般的으로 社會構造는 그 社會가 期待하는 바대로 人間行動을 규제하며 욕구충족을 위한 諸行動의 절차를 제공한다. 그리고 마치 既存節次만이 唯一한 方法인 듯이 보이게 한다. 人間이 하나의 욕구를 충족하는데는 여러가지 方法이 있다. 그러나 社會制度는 그 여러가지 選擇可能한 方法中 社會가 提示하는 것 以外の 것을 모두 排除해 버린다. 個人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公式을

제공하고 個人은 그 公式과 節次에 따라서만 욕구를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그 公式과 節次를 지키지 않으면 裁制를 받는다.

이처럼 人間은 社會의 統制下에 놓여 있음을 밝혀 주고 있지만 이런 式으로만 社會와 個人의 關係를 보면 社會는 마치 거대한 감옥과 같이 보일 것이다.

이런 式의 社會觀을 가장 잘 代表하는 것으로는 뒤르 켕 (Durkheim)의 理論이다. 그에 의하면 社會는 그를 구성하는 個人들 밖에 外在하는 實在로서 결코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實體라고 한다.

社會는 個人밖에서 個人을 둘러싸고 그들의 生活을 구속하고 규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社會内の 특정 위치를 점하고 있는 個人은 그 地位가 이미 규정해 놓은 言語, 에티켓, 信條를 따르고 나아가서는 個人은 社會構造의 속성이나 경향, 예를 들면 自殺率에서도 自由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社會構造는 個人의 行動을 類型化하고 나아가 個人의 期待까지도 決定하여 個人의 行動을 強制, 拘束, 統制한다는 立場이 成立되는 것이다. 다음에서 그 代表的인 몇가지 見解를 열거해 보기로 한다. (87)

첫째 實存論的 社會學에서 강조하는 人間은 마치 꼭두각시와 같은 非主体的 人間이다. 여기서는 人間을 役割演技者 (role player)로 본다. 役割을 떠난 人間存在을 상상할 수 없다.

「나는 役割을 演技한다. 고로 나는 存在한다」라고 하는 것이

社會學的 人間이다.

그런데 役割이란 人間自体가 가진 속성이 아니다. 個人的 성격의 한 側面이 아니다. 이것은 社會構造의 基本單位이며 어디까지나 구조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役割은 구조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社會的 位置(position)인 地位(status)와 항상 같이 있다. 役割은 특정개인과는 獨立的으로 存在하며, 役割의 內容도 個人이 아닌 社會가 規定한다. 그리고 役割은 반드시 이것대로 行動하지 않을 때 拘束力을 發揮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38)

여기서 우리는 役割을 뒤르겐이 말하는 社會的 事實로 볼 수 있다. (39) 왜냐하면 役割은 個人에 外在하면서 個人을 구속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役割은 한마디로 특정 지위를 갖고 있는 行爲者에 대한 社會, 文化的 期待라고 할 수 있다. 그 行爲者가 어떻게 行爲하고 어떠한 態度와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 役割이다.

役割期待는 無作爲的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規範에 根拠해서 類型化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같은 役割期待대로 行動하는 人間이 왜 꼭꼭각시와 같은 存在가 되는가가 問題이다. 社會的 存在인 人間이 役割期待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人間은 결국 役割期待에 따라 웃고 울고 하는 一種의 演技者가 되어야 한다. 役割이란 낱말의 語源도 라틴어의 Persona 에서 나왔다. Persona 는 연극배우들이 연기할 때 뒤집어 쓰는 탈(mask)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役割

演技者는 무대 위에서 시나리오의 요구에 따라 울고 웃어야 하는 배우인 것이다. 오로지 시나리오의 命令과 期待에 따라 行動해야 할 義務만 있는 것이다. 自己의 진정한 個性과는 關係없이 시나리오의 期待대로 行動하고 느껴야 한다. 여기 演技者의 主体性이 있을리가 없다. 人間은 役割演技者로서 처음부터 非主体的 存在요 꼭둑각시라는 입장이다.

둘째 Freud의 精神分析學은 일종의 人間精神에 관한 決定因 (psychic determinism)에 입각하고 있다. Freud는 決定論的 方法을 人間心理分析에 적용한 것이다.

꿈, 日常生活에서 겪는 당혹감, 精神적 不安, 宗教, 神話, 藝術, 文學등 人間行爲의 모든 表現들은 일종의 人類共通的인 心理過程에 의해 결정된다. (40)

특히 無意識속에 깊이 침재된 本能 (libido)의 힘과 교묘한 自我防禦的인 心理過程 (ego-defensive mechanism)에 의해 人間の 行爲가 결정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Freud의 人間은 凡性 欽說에 기초한 決定論的 人間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세계 古典的 學習理論의 基本概念인 자극과 反應이라는 S-R 圖式에 따르면 人間이란 刺戟에 기계적으로 反應하는 “빈병” 또는 “白紙”의 反應體에 不過하다. 人間이 刺戟을 選擇적으로 다룰 수 없다. 자극은 獨立變數이고 反應하는 客體로서의 人間은 종속 變數인 것이다.

여기선 Pavlov의 條件反射實驗에서 사용된 개나 人間이나 기본

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원래 行態論에 의하면 動物과 人間은 反應體로서 本質的인 差異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動物行動을 說明하는 概念과 原理로 人間行爲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⁴¹⁾

이렇게 해서 外的 刺戟에 기계적으로 反應하는 客體的 存在로서의 인간의 概念이 뚜렷이 부각된 것이다. ⁽⁴²⁾

한편 마르크스-레닌의 人間觀에 있어서는 決定論的 概念規定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人間輕視思想에 입각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提示한 人間本性에 대한 觀點을 간추려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즉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① 人間本性은 의도적 方向으로 改造할 수 있다.
- ② 人間은 극히 단순한 動物이다. 그들은 조종하는 데로 움직일 수 있다.
- ③ 人民大衆은 自身을 위해 무엇이 좋고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모른다. 그들은 엘리트에 의하여 指導되고 統制되어야 한다.
- ④ 大衆의 대부분은 政治的 決定能力이 없다. 다만 決定에 따를 뿐이다.
- ⑤ 政治意識이 약하고 政治的 自由를 모르는 그들은 政治的 責任意識이 없다.
- ⑥ 人間意識에 影響을 주는 社会經濟的 環境은 党的 指導者가 組織하고 統制하며 指導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人間의 反社会的 獨自性的 側面

이상과 같은 思考方式에 대해 다음의 社會學的 概念들은 個人을 社會로부터 自由를 박탈당한 存在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48)

첫째 人間行爲의 意圖性を 중시하는 입장을 들 수 있다. 뒤르 쾅이 社會의 外在性, 客觀性, 實在性を 강조한데 반해 막스 웨버는 行爲者의 主觀的 意味와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人間行爲의 主觀的 次元을 社會現象의 理解에 매우 重要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정 社會的 狀況에 대하여 어떤 意味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의 行爲이 달라지는 것이다.

여러가지 社會的 狀況, 예를 들면 가족, 직장, 전쟁, 정치라는 狀況은 거기에 參與하는 사람들에게 제각기 主觀的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그 狀況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해석을 내리며 또 參與하는 意圖도 다를 수 있다. 이같은 人間의 의미부여, 해석, 의도등은 同一한 狀況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적어도 個人은 狀況의 完全한 노예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웨버의 圖式속에는 個人은 적어도 限界的 存在(Maginal)로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合意된 共通의 意味가 반드시 絶對的 強制力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認定할 수 있다.

둘째 人間은 社會로부터 自身을 온둔시킴으로써 自由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社會라는 무대로부터 自身을 탈락시키고 自

己 스스로의 知的, 審美的 또는 宗教的 世界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集團과 社會關係를 유지하게 되면 소위 反文化(counter-culture) 또는 下位文化(subculture)를 형성한다. 이는 적어도 部分的으로나마 一般社會로부터 解放되는 것이다.

세계, 어빙 고프만이 말하는 役割距離(role distance)의 概念이다. 즉 人間은 自己의 役割遂行과 意識 사이에 距離를 둘 수 있다는 착상이다. 社會的 役割과 眞實한 同一視를 하지 않고도 人間은 그 役割을 意識的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黨幹部는 매일 金日成에게 無條件 服從하면서도 金日成의 목을 자를 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며, 黨員을 두려워 하고 선망하는 住民도 內面으로는 그들을 증오하고 제거할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대개 공포분위기와 강압적인 狀況속에서 이와같은 役割距離의 現象이 배태되기 마련이다. 이 概念은 人間이 거의 自動的으로 自己의 役割을 수행한다는 假定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強力히 시사한다.

이 概念은 종래 人間이 어떤 役割을 맡아 遂行할 때는 그 役割에 수반된 의무를 어느정도 內面化하여 순응한다는 단순하고 單線的인 思考方式에 대한 일대 挑戰이다. 사람이 外形的으로는 社會에 구속되고 또 순응하면서도 意識의 自由를 향유할 수 있고 그 自由로운 意識이 언젠가는 社會로부터 自己를 해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注意해야 할 점은 人間은 社會로부터 自由로울 수 있다는 것이지 人間은 원래 自由롭다는 것은 물론 아니라는 점이다.

끝으로 이에 더 나아가 피터 버어거는 人間存在는 本質적으로 自由롭다는 假定下에 人間과 社會的 存在를 규명하는 관점으로서 實存主義를 제창하고 있다. 人間은 자유로우면서도 그 자유에 直面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欺瞞하고, 選擇이라는 피로움으로부터 도피한다는 논리이다. 社會內에 存在하는 수많은 役割들은 모두 欺瞞의 可能性을 지니고 있다고 봄으로써 社會的 役割의 選擇과 遂行은 궁극적으로는 自由로운 것이며, 따라서 그 役割遂行者의 個人的 決斷이 必要하다는 논리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社會는 어느 정도 客觀的이고도 外在的이며, 人間을 구속하고 統制하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人間 역시 社會를 유지하고 때로는 社會를 變革시키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社會的 存在의 「파라독스」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社會란(뒤르켐이 생각했던 것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社會統制體制는 그 統制를 받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支持와 確認을 받아야 하며 때로는 사람들이 그 支持를 거두어 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個人은 既存社會構造에 대한 潛在的 威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 人間의 兩面的 特性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人間性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며 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社會構造가 人間個人的 行動을 類型化하고 개인의 行動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個人的 욕구와 기대까지도 결정한다는 종래의 決定論的 立場에 대해서 오늘날 社會科學界의 지배적 동향은 個人을 社會로부터 自由를 박탈당한 被拘束的인 存在로만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강하게 비추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人間行爲決定에 있어서 行爲當事者의 주관적 의미와 의도성을 중시하려는 「막스 웨버」의 圖式을 비롯하여 「어빙 코프만」의 役割距離 (role distance) 概念; “人間存在는 본질적으로 자유롭다.”는 「피터 버어그」의 實存主義, 그외에도 限界的 人間, 反文化的 概念 등이 人間の 主体性を 부각시킨 견해들이라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원래 人間の 本性은 매우 신비스러운 主体的 存在이며 따라서 아무리 人間에 관한 現代科學과 哲學이 발달해서 人間을 敎育하고 규명하려 한다해도 人間은 그 自体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生動的이며 開放的인 存在이므로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現代敎育哲學者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한 人間에게는 合理性과 感情性, 사랑과 증오, 知性과 感性, 創造力과 模倣力, 그리고 創意的 個性이 동시에 포괄된 복합적이고 兩面的 存在가 바로 人間이란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潛在的 可能性을 開發하고 發達시키는데에도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接近方法과 계기가 要求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人間은 어머니의 젖줄을 통해서 愛情과 人間愛를 느끼게 되고, 가족끼리의 식탁에서 所屬感을, 父母의 사랑을 통해서 個性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家庭生活을 통해서, 또 家族員間의 人間的 상호협력을 통해서, 人間的 潛在可能性이 하나 하나 開發되고 愛情, 所屬感, 個性 등이 발달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劃一性和 集合性を 강조하고 있는 北韓의 입장에서 볼 때 家庭生活속에서 개발되는 이러한 人間本性은 바로 劃一性を 否定하는 특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아마도 金日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對象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러한 人間本然의 특성들이 발달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始初부터 없애 버리자는 발상이 나옴직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世界歷史의 흐름은 어떠한 理念, 어떠한 制度인가를 불문하고 體制가 人間에 奉仕하는 것이어야지 人間이 體制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아가 人間에 奉仕하는 體制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44)

이상에서 본 바와같은 人間의 本源的 特性에도 不拘하고 共產集團의 指導者들은 그들의 權力の 維持를 위해서는 大衆을 統制해야 된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共產主義的 비전의 正當性和 共產政權의 正統性を 確信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強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長期的 目標은 새로운

型的 市民, 새로운 “社會主義的 人間”을 創造하는 것이다. 물론 社會指導者로서 住民에게 바람직한 태도를 배양시키려는 政治社會化의 努力은 어떠한 나라나 體制에서도 提起되는 重要한 과제이다.

그러나 共產主義國家의 共產政權은 住民을 社會에 종속시키는 과정에 있어 보다 의도적이고 集中的인 힘을 투입한다. 이는 後世代에게는 共產主義的 價值를 傳承하고 동시에 旧世代에 대해서는 既存價值體系를 變용케하여 모든 住民으로 하여금 共產主義的 規範에 全적으로 同調하게 하는데 그 저의가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하여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그들 나름대로 主体的 共產主義 人間을 만들어 내기 위해 幼兒때부터 託兒所에서 그러한 共產主義 人間을 양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現實에 있어서는 분명한 逆說이 발견된다.

教育目標은 主体的이고 自律的인 共產主義的 人間, 또는 革命的 人間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目標을 실현하는 方法, 過程 및 節次는 이 目標와는 正反對되는 非主体的, 他律的, 기계적, 強壓的인 方法이라는 事實이 문제되는 것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託兒所에서 集團生活을 강요하고, 個性을 무시, 破壞시키는 분위기속에서 오로지 한사람의 命숨에 따라 죽고 살 수 있는 自動化된 人間機械를 強壓的으로 제조하려는데서 非主体的이고 非共產主義的인 意識구조가 형성되어 나오게 된다는 측면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北韓의 靑少年들은 날로 敎條的으로 경직화되어 가는 政治文化 속에서 收容所의 人間으로 변질되고 있다. 수용소에 갇힌 囚人에게는 自由나 自律이나 主体性이 있을 수 없다. 이같이 囚人으로 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北韓的 人間이란 바로 金日成主体思想에 의해서 구조된 非主体的 人間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한 논거에 비추어 볼 때 共產國家의 現實은 여러가지 社會化政策에도 不拘하고 共產支配集團이 선전한 이러한 理想的인 “人間像”의 定立과는 달리 여러가지 갈등과 모순을 內在하게 된다.

즉 새로운 人間을 創造하겠다는 要求와 그것이 實際적으로 具現되는 社會的 意識사이에는 심각한 遲滯現象 (social lag)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더우기 人間改造가 어떤 少數統治集團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強壓的으로 도야되었다고 할 경우, 役割距離現象이 더욱 역력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안정된 바탕을 갖춘 主体的 自我로서가 아니라, 自我의 支柱를 他者에게서 求하는 客體的 他我로서 存立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곧 自我發達의 限界點에 봉착하고 만다는 事實은 이미 歴史的으로 증명된 바 있고 또 共產主義 여러나라에서 立証되고 있는 점이다.

獨逸 나치스의 超人的 指導者 原理의 파탄이 그렸고, 蘇聯에 있어서 共產主義的 人間의 퇴색과 이에 따른 靑少年의 逸脫 및 大衆社會化 現象 또 東歐에 있어서 靑年文化의 소외 현상과 현실도피 등 이러한 現實的 諸般問題의 惹起는 注目的 대상이 되고 있다.

4. 北韓靑少年의 意識構造

가. 기대하는 理想的 人間型

앞에서 본 각종 社會化裝置와 統制政策을 통하여 北傀가 기대하고 所望하는 바 北韓靑少年의 '理想的인' 性格特性은 다름아닌 「새型的 共產主義的 人間」이 갖추어야 할 要件일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北傀는 勞動黨規約(第1章5條)에서 所謂 共產主義的 人間型에 關한 黨的 要求條件을 分明하게 나열하고, 그들의 理想的인 「새型的 人間」이 갖추어야 할 品性과 思想的 革命的 基調를 提示한 것이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⁴⁵⁾

① 祖國의 統一과 社會主義 및 共產主義建設을 위하여 積極鬭爭하며 社會主義祖國을 튼튼히 保衛하여야 한다.

② 黨的 革命的 傳統을 깊이 研究, 發見하고 그것을 繼承 發展시키며, 우리黨의 思想體系로 확고히 부정하며 黨中央委員會의 주위에 굳게 團結하여 그를 튼튼히 保衛하며, 宗派主義, 家族主義를 반대하여 堅決히 鬭爭하며, 黨的 統一과 團結을 固守하여야 한다.

③ 黨에 무한히 充實하며, 黨的 路線과 政策을 無조건 接受하고 철저히 擁護하며 그것을 精確히 관찰하여야 한다.

④ 自己의 政治 및 實務水準을 높이기 爲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黨政策을 正確히 알고, 그에 立脚하여 現實問題를 올바르게 분석하며 革命課業을 能熟하게 解決하여야 한다.

- ⑤党性을 단련하고 党生活을 강화하며, 党大會에 正常的으로 參席하여 問題討議에 積極적으로 參加하여 黨組織에서 委任된 工務工을 正確히 遂行하며, 革命事業을 위하여 항상 思考하고 움직이며, 모든 사업에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 ⑥大衆과의 連繫를 강화하고 그들에게 黨政策을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주며, 大衆의 要求와 意見을 허심히 접수하고 그것을 제 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들을 公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改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 ⑦日常生活에서 素朴하고, 文化的이며, 겸손하고 예절이 밝으며, 私利와 功名을 탐내지 말고, 검박하게 살며, 黨앞에서 항상 率直하여야 한다.
- ⑧勞動에서 模範이 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선두에 서서 大衆을 이끌고 나가며, 자기 맡은 사업에 精通하며, 技術革新에서 創造的 熱誠을 發揮하며, 勞動規律을 自覺적으로 지키며, 勞動生産能率을 부단히 제고하며, 企業管理運營에 率先적으로 參加하며 國家財産을 愛護節約하여야 한다.
- ⑨職位와 功勞에 관계없이 全員에게 다같이 適用되는 唯一한 黨의 規律을 自覺적으로 遵守하여야 한다.
- ⑩事業과 生活에서 나타나는 缺陷에 대해서 앞장서서 비판하며, 黨의 利益을 第一生命으로 알고 그것을 해치려는 온갖 否定的 現象들을 반대하여 堅決히 鬪爭하며, 자기의 缺陷을 率先是正하여야 한다. ... 사실상 모든 결함에 대하여 党中央委員會에 이

르기까지 各級黨委員會에 義務的으로 報告하여야 한다.

①黨의 秘密을 嚴守하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항상 높은 경
각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나아가 1961年 9月 第4次 黨大會에서 행한 中央委員會事業總
和報告에서는 「黨中央委員會와 같이 思考하고 行動하며 어떠한 어
려운 環境속에서도 그와 運命을 같이하여 끝까지 鬪爭」한 黨의
手足과 같은 鬪士의 단련이 곧 「새型의 人間」의 品性이며 思想
革命의 基調라고 金日成은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
은 모든 社會組織과 教育敎養事業을 통하여 이러한 理想的인 人間
像의 形成에 主眼을 全念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共產國家의 現實은 이와같은 理想的 像의 定立과는
달리 커다란 間隔이 內在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北韓靑少年의 行
爲樣式 및 價值觀은 그 自体가 自然的, 自意的인 것이 아니라 共
產黨의 意圖的 作為의 產物임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이와같이
하여 共產國家에 있어서는 社會主義 革命이라는 人爲的 介入과 作
爲的 단절이 插入되기 때문에 共產黨이 目標하는 人間意識의 改造
는 諸社會主義的 社會化政策에도 불구하고 그 社會的 條件의 改革
보다 遲滯할 뿐만 아니라 (cultural lag) 의식의 改造에 있어
서 곧 限界에 도달하게 된다.

더우기 人間型 培養 내지 價值觀 確立이 強壓的 人工的으로 도
야되는 경우, 그것이 完固한 바탕을 갖춘 主体的 自我로서 生成될
수 없다는 事實은 歷史的으로 立証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히틀러」의 起人的 指導者原理가 된 「나치즘」의 파탄은 이를 실증하였고, 오늘날 東歐青年文化의 疎外現象, 蘇聯에 있어서 共產主義的 人間型的 褪色과 動搖, 自由化傾向 및 이에 따른 青少年의 逸脫의 야기는 注目되는 문제이다.(46)

이런 점에서 특히 共產社會에서는 언제나 現實이 理想을 追跡하지 못한다는 근거가 서는 것이다. 즉 共產國家의 현실적 實像은 그네들이 設定한 理想的 像과의 사이에 커다란 間隔이 內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컨대 레닌에 의하면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와 人間에 대한 人間의 榨取를 絶滅함으로써 社會主義는 私有財産心理, 부르조아 民族主義的 見解, 宗教的 先入觀등의 기반을 파괴하였다. 그러나 過去의 殘存物은 社會主義的 生活樣式속에 그 支柱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의 意識과 行動속에서 아직까지 保存되어 있다. 나아가 이러한 殘存物은 社會主義的 生産樣式 및 社會主義的 思想 意識과의 矛盾을 드러냄으로써 共產主義建設에 重大한 妨害가 되고 있다」고 述懐하는가 하면(47) 또한 金日成도 1961年 9月 「第4次黨大會」에서 「우리는 지금 이 事業을 始作한데 불과하며 이 分野에서 우리가 達成한 成果는 아직 初歩的인 것」이라고 強調하였고,(48) 1969年 3月 「전체교육일꾼들에게 내린 3.14 교시」에서도 그는 「青少年學生階層이 모두 無錫한 共產主義者로 양성되었다는 下部末端의 報告는 허위 조작된 것이다」라고 비난함으로써 共產主義的 人間改造와 價值觀形成의 限界性을 自認하고 있다.

또 1973년에 實施한 「새 党証再交付事業」을 계기로 오늘날 北韓靑少年이 가지고 있는 社会意識의 양태를 더욱 뚜렷이 유추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北韓住民들의 社会意識의 몇가지 問題點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째는 「金日成敎示」學習의 기피현상이다. 北韓에 있어서 「金日成敎示」는 바로 法이며 党政策은 「敎示」를 집행하기 위한 手段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敎示를 소홀히 한다거나 不敬하는 일은 北韓의 立場에서 보면 反社会的 犯法行爲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在 北韓住民들과 一般黨員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金日成敎示의 學習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党을 비롯한 각종 조직생활에 대한 外面現象이다. 北韓에 있어서 共產黨員은 社会的 上層으로서도 主導的 勢力을 담당하는 特權的 階級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支配엘리트간에서도 組織的 生活에 不滿을 품고 이를 기피하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수많은 黨員들 중에는 겉으로는 「党的 唯一思想体制가 確固히 섰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組織生活에 혐오를 느끼고 이를 기피하는가 아니면 아예 체념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로써 個人的 不滿과 內的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셋째, 社会的 不滿과 逸脫的 行動을 惹起케 한다는 점이다. 물론 北韓은 蘇聯의 非行과 成人의 犯罪行爲가 전혀 없는 것처럼 偽裝된 선전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단

편적 사례에 의하면 각계각층의 모든 住民들 가운데서 야기되고 있는 反社会的 行爲樣態는 단순하지가 않다. 예컨대 北韓住民의 不滿意識에서 유래되는 社会問題의 特定的 樣相을 보면

- ①經濟活動과 關聯된 反社会主義的 犯罪行爲,
- ②人身侵害에 관한 犯罪行爲,
- ③反体制的 反抗運動의 사례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強压的인 社会主義化政策에 따른 北韓社会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모든 住民들의 内面的 社会意識의 樣態를 대변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勞動新聞을 통해서도 모든 不健全 思想要素들과 住民답지 못한 態度에 관해서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49)

- ①일꾼과 勤勞者들 속에서 金日成敎示와 黨政策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지 않는 현상
- ②말겨진 革命課業遂行에 투신하지 않고 어물어물 空時間을 보내는 現象.
- ③일을 無責任하게 되는대로 하거나 진송진송하는 현상
- ④自體의 힘으로 난관과 險路를 극복하지 않고 누가 도와 주기만 바라는 현상
- ⑤國家財産을 소중히 관리하거나 아껴쓰지 않고 浪費하는 현상 등에 대한 비판이 강조되어 있다.

이상의 자료에서도 明白한 바와같이 共產黨의 志向과 그 統治下

에 있는 靑少年들이 가지는 心理面의 現實間에는 커다란 乖離 내지 矛盾이 개재하며, 따라서 共產指導層으로 하여금 이른바 「思想 武装強化」에 거듭 一次的 의의를 부여하게끔 된다는 점은 모든 共產主義者들에게 共通되는 未解決의 問題로 남게 된다.

나. 實在的인 社会意識의 樣態

우리는 여기에서 自由民主主義의 社会心理와는 달리, 共產主義 社会의 心理的 特性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의해 기대되고 있는 理想的 像과 그것이 現實的으로 具現되고 있는가의 問題사이에는 乖離가 있음을 본다. 즉 共產社会에서는 人間意識의 改造와 社会改造間의 遲滯性때문에, 또 少数統治集團의 一次元的인 作為性과 機械論的 學習方法의 強压性 때문에, 理想像과 現實型間에는 갈등이 內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北韓의 現實的인 社会意識과 行動의 特性은 무엇인가를 다음에서 유추해 보기로 하자.

(1) 공격성과 被暗示性

北韓의 靑少年이 攻擊的 人間으로 造型될 것이라는 것은 K·Horney의 理論에서도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⁵⁰⁾ Horney에 의하면 모든 幼兒가 갖는 가장 심각한 不安은 父母로부터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不安이다. 이것을 Horney는 基本的 不安

(the basic anxiety) 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基本的 不安을 克服하는 方法과 戰略에서 그 유아의 性格이 형성된다고 한다. 幼兒는 父母와 떨어져 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戰略을 使用해 보고 그 중에 만약 攻擊的 方法이 먹혀 들어 간다면 곧 이 方法을 반복함으로써 攻擊的 人間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Horney의 理論에서 보면 北韓의 어린이들은 世界어린이들 중에 가장 심한 基本的 不安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 實施하고 있는 「어린이 保育敎養法」에 의하면 生後 1才 에서 3才까지의 어린이를 週・月託兒所에서 養育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金日成의 主体思想의 哲學的 原理에 立脚하여 主体型的 革命的 人民으로 어린이들을 주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全北韓의 幼兒가 週・月託兒所에 수용되어 家族대신 國家에 의해 길러지게 된다. 國家管理下의 託兒所에 수용된 유아는 父母와 떨어져 있음으로써 基本的 不安은 그만큼 클것이다.

예컨대 北傀는 「...經驗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어린이들을 個別的 家庭에서 키우면 肉體的・知的 發展이 늦어질뿐만 아니라 낡은 思想 殘滓의 影響을 많이 받는다. 어린이들을 社會的・集團的으로 양육하는 우리의 保育・敎養制度는 個別的 家庭에서 키우는데서 나타나는 이러한 制限性을 克服하고 그들을 훌륭히 보육할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週・月託兒所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은 그들의 父母와 만나는 날이 다가오면 거의 침식을 잊고 保育員・敎養員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고 窓 넘어 바깥쪽만 내다보는 현상이

이를 잘 立証하고 있다.

이와같이 基本的 不安의 濃度가 진할수록 北傀는 이러한 不安克服을 위해 보다 極端的인 養育方法을 動員하게 된다. 여기에서 자연히 攻撃的인 性向도 커지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攻撃的인 性向은 言語를 익히는 과정에서 特定한 상징을 조작시켜 놓고 그러한 特定對象으로 投射시키게 되면 그 攻撃性이 더욱 활발히 성장된다. 예컨대 「美帝國主義者」나 「미제앞잡이」라는 特定對象, 즉 「심볼」을 조작하여 놓고, 基本的 不安에서 연유하는 攻撃性向을 이러한 「심볼」을 향하여 集中시킴으로써 攻撃性을 더욱 커지도록 조장한다. 이같은 증오심과 攻撃性의 조장은 他律的 如地에 놓인 자신을 自覺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모든 不滿과 不安을 단곳으로 전환시키는 效果를 노린 것이다.

여기에 添加하여, 어릴때부터 父母를 떠나 二次集團的 분위기 속에서 養育되는 어린이는 철저한 洗腦教育을 통해 一定한 刺戟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反應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刺戟을 選擇해서 主体的으로 対応하는 能力을 길러주지 않고, 特定한 刺戟에만 기민하게, 機械的으로, 그리고 動物과 같이 格正적으로 反應하게 한다. 이렇게 될 때 어린이들은 어른이 된 後에도 被暗示性이 강하여 쉽게 催眠에 걸리게 된다. 두려움 없이 어떤 자극에 盲從하는 自動化된 인간으로 變型되는 것이 쉽다.

(51) 말하자면 「나치」나 「스타린」式의 動員體制속에서 쉽게 動員되고 조종되는 人間이 되어 버린다. 오늘날 北韓의 靑少年들도

金日成이란 자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면상태속에서 각종 勞力動
員과 戰鬪訓練에 피동적으로 動員되고 조작되는 것이라 하겠다.

(2) 官僚意識과 官僚主義的 作風 (52)

社會主義體制下에서는 國有化된 生産手段에 의한 中央의 統制機關
으로서 官僚機構가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53) 여기서는 이러한
社會主義的 條件으로부터 歸納된 靑少年意識 가운데 특히 官僚主義와
關聯된 則面을 보기로 한다.

社會主義建設過程에 있어서 現實的 問題 가운데 人間의 意識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官僚制와 官僚主義의 問題이다. 官僚主
義 問題에 대해서는 1917年 10月 러시아革命直後 레닌도 警告한
바 있다. 「社會主義는 위로부터의 命令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社會主義情神은 官僚的 機械的 行爲와는 無關하다. 創造
的인 社會主義는 人民大衆 自身の 創造物이다.」라는 것이다.(54)

이는 社會主義政權의 發足 당시 社會主義와 官僚主義와의 關係에
관한 그들의 公式的 立場으로서 이러한 發言의 底辺에는 이미 官
僚主義的 危險의 징후가 介在되어 있음을 豫想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社會主義 社會는 集團主義原則에 의거하여 모든 個人을 組織
속에 埋沒시키고 있다는 側面에서 官僚化된 조직은 社會主義的 人
間意識과 正面으로 扞觸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官僚制가 지닌
非情誼的 特性은 組織이 人間性에 背馳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아지리스」는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⁵⁵⁾ 人間은 그 成長過程에 따라 점차로 能動的, 自主的, 多樣的, 全体的, 長期的인 것에도 보다 關心을 쏟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人間이 가진 이러한 自我實現化 (Self-actualization) 의 基本的 發展傾向 (人間의 本性) 과는 대조적으로 「自我의 原則」은 그러한 人間性的 基本的 發展性向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組織原則이 嚴格히 適用될 경우 個人은 점차로 受動的, 從屬的 存在로 變容되어야 하고, 個個人的 自我實現化的 欲求是 下位層일수록, 또 機械化가 進行될수록, 그들의 能力發揮의 機會가 줄어들어 一部밖에 活用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個人的 欲求와 組織의 要求가 相衝을 일으키고, 나아가 組織속의 人間은 이른바 組織人으로 변모된다.⁽⁵⁶⁾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잘 訓練되고 忠誠心이 강하고 自制的이어서, 個人主義나 自己信賴보다는 集團에 의존하려는 獨創力없는 기형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官僚化된 組織은 理想型으로서의 共產主義的 革命意識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過程에서 官僚主義的 意識이 現實的 心理로 부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則面에 비추어 볼 때 集團主義的 道德規範이 강조되는 北韓社會의 現實的 人間은 官僚主義的 組織人으로 구조된다고 하겠다.

社會主義國家에서指摘되는 官僚主義的 病弊는 繁文縟體, 文書主義, 無責任性, 管轄다툼, 形式主義, 收賄 및 誇張허위보고 등이다. 특히 頻繁한 會議는 非能率과 形式主義를 초래한다. '에컨대' 個人的 自主的

責任으로 處理될 수 있는 案件도 모두 會議를 거쳐서 會議體에
 責任을 轉嫁하는 傾向이다. 中央에서의 指示를 末端組織이 自主的
 으로 融通性を 發揮하는 일을 社會主義國家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즉 새로운 사태에 임기응변적으로 即座해 나가는 伸縮性이란 存
 在할 수 없고, 問題의 解決을 항상 延期하고 即席에서는 決定하지
 못한다. 그 反面에 中央으로부터의 指令에 대해서는 直線的으로
 맹종하는 것이 상식이다. 社會主義社會의 官僚性은 드디어는 體制
 自體의 非能率性마저 야기하는데 이른다. Inkeles에 의하면 「社
 會主義가 官僚主義를 打破하는데 成功하지 못하면 官僚主義가 社會
 主義를 破壞할 것이다」라고 論破함으로써 (57) 官僚主義는 社會主義
 메카니즘에서 거의 不可避的인, 또 最大의 惡의 하나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는 그러한 정도로 社會主義的 人間이 官僚化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人間은 모두 機械化되고 劃一化되어 自主性
 과 主体性이 抹殺되고 만다. (58) 이렇게 하여 社會主義國家에 있어
 서 官僚意識은 最大의 敵으로서 끊임없이 批判의 對象이 되고 있
 다. 北韓의 경우, 特異한 政治風土위에 強制로 導入된 스탈린主義
 的 統治方式의 固執이 類例없는 官僚主義를 초래하게 된 것은 그
 必然的 結果라 하겠다. (59) 그러나 金日成은 官僚主義의 濫源自體에
 는 반성하지 않고 下部幹部만 詰責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官僚
 主義란 「黨과 群衆을 離脱시키는 要因」이며 「反人民的統治方法」
 이므로 이를 退治하면서 各級幹部들은 「大衆의 利益을 위하여 鬪
 爭」하는 「群衆路線」에 서야 한다고 前提하고, (60) 北韓에 있어서

官僚意識의 表現形態를 다음과 같이 列挙한 바 있다.(61)

① 일단 登용되면 自己自身을 特殊한- 存在로 認定하고 自高自大하는 경향

② 主觀的 固執, 즉 다른 同志들의 意見을 들어 보거나 또는 部下의 실정을 調査하지 않는 事例

③ 功名主義와 地位欲, 즉 上部에는 아부하고 下部에 대해서는 抑壓·迫害하는 것.

④ 命令과 号令의 方法으로 事業하려는 경향

⑤ 勢道를 부리는 것

⑥ 党指示文의 남발로 政權機關의 實務를 代替하려는 行為

⑦ 檢閱에 있어서 探偵式·警察式 方法

⑧ 上部指示에 대한 盲從

⑨ 革命家的 自主性を 잃어버리고 雇傭者的 根性에 사로잡히는 無責任性

⑩ 批判의 抑壓

⑪ 功勞本位의 機會主義

⑫ 創發的 意見의 默殺

⑬ 事業에 熱誠이 없는것 등이다.

그 뿐만아니라 특히 北韓에 있어서 「党的 領導方法과 幹部들의 事業作風」에서 보는 官僚主義는 더욱 莫甚하고 熾포한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62)

그런데 이러한 官僚主義의 根源에 대해 金日成은 다음과 같은

解釋을 내리고 있다. 즉

①封建的, 부르조아의 思想의 殘存

②党的 幹部政策의 缺陷

③幹部들의 많은 부분은 革命的 經驗이 적고 大衆을 革命的으로
옳게 지도하는 能力과 領導方式을 체득하지 못한 靑少年黨員으로
구성 되었고

④党的 그릇된 事業作風을 반대하여 철저한 鬪爭을 하지 않았으
며, 指導·幫助하는 事業을 不足하게 進行하였다는 枝葉的인 側
面에서 官僚的 作風의 根源을 찾고 있다.

그러나 北韓靑少年들의 官僚主義的 意識은 共產主義的 生産過程과
社會主義體制 自体에서 연유하는 불가피한 現象이지, 결코 어떠한
「思想敎養」「幹部事業」 내지 「指導·幫助」로서 退治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는 北韓의 官僚意識이란 金日成體制 自体에
서 연유하는 것으로 考察되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3) 과잉 동조성과 不安意識

다음에는 社會主義가 官僚制와 同時에 獨裁體制를 불가피하게 한
다는 사실과 關聯해서 靑少年意識의 特性을 밝혀보기로 한다.

獨裁體制的 特性을 心理學的으로 解釋하면 그것은 恐怖와 不安의
支配가 된다. 暴力(秘密警察)을 배경으로 한 獨裁者가 絶對的
權力을 장악하기 때문에 民衆은 그 밑에서 그의 方針으로부터의
逸脫을 극히 두려워 하게 되고, 나아가 不安의 心理狀態에 빠진다.

따라서 行動 및 價値의 評價基準을 自己의 內面에서 찾지 않고, 外
 在的인 權力에 依存하게 된다. 權力鬭爭에서 이긴 者가 마르크스主
 義 解釈의 独占權을 장악하고, 모든 政策을 合理化한다. 眞理, 正義,
 및 價値의 基準은 항상 그 當時에 權力을 장악한 者에게 맡겨진다.
 形式的으로는 共産党的 指導가 一貫되는 것처럼 보이나 實質的으로는
 當時의 權力者에 따라서 政策의 路線이 채택되고, 또 矛盾된 정책이
 라 할지라도 「勝利한 便」이 正当化된다. 그때문에 民衆으로서는
 盲目的으로 党的 政策에 服從할 뿐이지 實質的 內容의 檢討에 의한
 判斷은 不可能한 것이다. M.Mead가 제시한 바와 같이, 西歐的 人
 間型에 있어서는 어제 했던 말과 오늘에 한말이 一貫하는 統合된
 人格인데 비해서, 共産主義社會에 있어서는 党的 路線이 變化하면, 昨
 日에 한 말과 今日에 한말에 矛盾이 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그러한 變更된 党路線에 충실히 順應할 수 있는 人間이야
 말로 「퍼스낼리티」가 통합되고 價値가 확립된 者로 간주되는
 것이다. (63) 이와같이 「퍼스낼리티」의 統合과 行動의 基準이 內
 面的 價値와의 關係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外在的 權力과의 關係에
 의해 規定되는 것이기 때문에, 共産社會의 大衆行動은 「罪의 文化」
 에 의거한다기 보다 「恐怖의 文化」에 의해 規定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行動은 조심하게 되고 思考는 政治에 完全히 예속
 되며, 集合的, 非個性的, 劃一的, 形式的 同調만이 남게 되고 이로부터
 恐怖와 이탈을 두려워 하는 不安意識이 支配된다.

이러한 「政治的」狀況에서는, 自身の 安全을 지키는 自己安全主義

가 最上策의 出世基가 될 것이며, 政治的으로는 精神的 亡命者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어제까지는 영웅적인 革命指導者가 하루아침에 「人民의 敵」으로 돌변하여 「反黨分子」가 되어 버리는 政治的 양상 속에서는 自身の 安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政治的으로 無關心(權力志向的 無關心)한 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한 無關心은 더욱 위험하다. 이 時点의 黨의 政治的 風向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政治에 대한 關心은 예민해지고 위험을 면하기 위한 適應方式이 발달하고 現狀에서 離脱하지 않으려는 思考體系가 우선하게 된다. 예컨대 第2次大戰中 獨逸軍의 捕虜가 된 蘇聯人을 대상으로 1950~1951年 美國 「하바드」大學에서 行한 「亡命者調査」에도, 「黨의 風向」을 알기 위해 「푸라우다의 社說을 읽는다」라는 応答이 頻頻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適應方式의 한 例라 하겠다. 즉 新聞의 社說을 읽는 行爲自体는 政治的 關心으로 나타나지만, 그 읽는 動機와 方式이 獨特하여, 危險을 면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人格의 表面에서는 權力에 동조하고 충실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人格의 內面에는 政治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亡命」하고 있는 것이다.

Bauer는 蘇聯의 中間的 엘리트層에 두가지 人間型이 있음을 亡命者 事例研究結果에서 제시하였다.⁽⁶⁴⁾ 즉 한 사람은 「價值志向的 理想主義者」(value-oriented idealist)이고 다른 하나는 「體制志向的 同調主義者」(system-oriented conformist)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가 요청하는 「새로운 人間은 前者이지만, 共產社会 建設이라는 高次元의 理想에 매혹되어 入党한 靑年이 政治的 肅清과 党機構의 官僚化에 幻滅을 느끼게 되고, 드디어는 現實的인 立身出世主義者로 변모하여 後者の 型으로 轉移한다는 것을 面接結果의 資料에서 유추하고 있다. 共產獨裁의 現實은 個人들로 하여금 内部志向的인 理想主義者로부터 他者志向的인 體制同調主義者에로 變容시켜 버리는 역할을 한 結果가 나온다.(65) 여기에서 갈등보다는 調和를, 革命보다는 順應을 追求하는 現狀志向的인 同調意識만 남게 되고 이러한 同調는 점차 學習과 成就에 있어서 하나의 道具的 手段으로 轉化되어 内面化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住民들은 現存體制에서 離脱되지 않으려는 心理的 메카니즘이 強化되고 이때문에 價值剝奪에 대한 不安, 肅清과 報復에 대한 恐怖, 초조, 동요등의 心的 不安定性을 유발하게 된다. 北韓의 경우 現狀志向的인 同調過剩에서 연유하는 不安과 恐怖는 심지어 그들의 高位幹部層에게까지 파급되고 있다 한다. 이러한 徵兆에 관해서는 金日成自身도 이미 言及한 바이다. (66)

「우리 黨의 10여년간의 鬪爭經驗에 의하면, 종파분자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를 주어도 黨을 의심하고 黨에 속을 주지 않습니다. ... 우리가 좀 노여워하든가, 黨에서 會議가 긴장한가, 自己問題는 어떻게 取扱되는가, 옆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自己問題가 아닌가해서 눈이 등글해 집니다.」

더우기 적어도 10年이나 金日成과 같이 일할 한 最高水準의 幹

部를 査察한다는것은 金日成의 指示없이는 不可能한 일이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이라고 본다면, 心理學的으로는 그만큼 独裁者 金日成 自身이 "누군가 自身の 生命을 노리고 있다는 強迫觀念에 사로잡혀 疑心症과 不安에 허덕이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結果가 된다.

이와같이 共產独裁體制下에서는 地位의 高下를 막론하고 社会的 不信과 同時에 心理的 不安定의 증상이 潛在해 있음을 본다. 이는 戰爭準備와 生産力增強이란 구실하에 모든 것을 성급하게 서두르게 되는데서도 연유하는 것이지만 원래 常時的인 鬪争과 肅清이 없이는 新陳代謝를 영위해 나갈 수 없다는 共產党的 辨証法的 唯物論式 生理가 그대로 作用된 結果物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4) 意識構造의 二重性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北韓의 靑少年은 한편에서는 共產主義的인 理想的 人間型에서 연유되는 革命性과 盲從性을, 또 한편에서는 金日成統治体制의 矛盾에서 연유하는 現實的 不安과 疎離성을 동시에 內在한 二重的이고 相克的인 性格構造를 면치 못함으로써, 心理的으로 極히 非連續的 狀態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같이 主体的 自我가 確立되지 못하고 独自の인 判斷力을 상실한, 不安한 意識構造는 극히 不連續的이고 對內外的인 刺戟에 의한 變容可能性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것은 그들

의 「忠誠心」과 「희생정신」은 國家와 民族에 대한 충복성, 봉사
精神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共産黨과 金日成에게 自身을 委託
할 수 밖에 없는 극한적 상황에서 유래된 依他性과 盲從心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보육교양법」을
실시하면서부터는 모든 어린이들이 탁아소, 유치원에 義務的으로
集團收容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初期社會化期間에 絶對적으로
必要한 父母의 存在, 父母의 愛情, 父母의 승인, 父母와의 상호만족감 등을 받을 수
가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러한 生活環境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는 의례히 난폭하고, 증오심, 공격심, 好戰性, 충동성, 그리고 戰爭
神經恐怖症과 정신분열증 등의 性格特性을 유발하게 된다. 더우
기 北傀는 그동안 極端的인 閉鎖的 環境을 強化하는 가운데 새로
운 世代가 지닌 충동성과 호전적 특성의 攻擊對象을 「美帝와 그
괴뢰들」이라는 상징적 대상으로 조작해 놓고 여기에다 그들의 不
滿과 울분을 發散시키도록 유도시켜 온 것이다. 이러한 環境操作
과 強壓的 人間形成政策은 이미 30年동안 감행된 것이다. 여기
에서 오늘날 北韓靑少年層의 行態는 한마디로 말해서, 「幻想에
사로 잡혀 金日成에게 盲從하는 自動化된 人間兵器」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특히 北韓의 金日成體制는 世界의 다른 어떤 共産社會보다도 더

戰時体制의 性格을 많이 띠고 있는 好戰的이고 도발적인 体制이며, 且 体制에 忠誠하는 共產主義者들은 어떠한 非人道的 行動도 서슴지 않고 자행할 수 있는 個人들이라면 体制의 꼭두각시들 이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實際的 側面에서 볼 때, 靑少年들이 가지고 있는 金日成과 共産黨에 대한 他律的인 盲從性은 韓國社會에 대한 하나의 威脅的 要素로서 作用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組織的이고 強壓的인 方法에 의하여 劃一的 思想만을 주입시켜온 北傀의 社會化政策에는 적지않은 問題點과 限界性이 內在되고 있다는 점이 자명해졌다. 이에 따라 北傀集團은 이러한 危險에 對抗措置로서 幹部들은 물론 모든 北韓 住民에게 日常화된 強制的 思想教育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再社會化 (resocialization) 의 努力에 있어서도 그 限界가 있음은 自명한 事實이다.

이에 比하여 韓國에 있어서는 社會化의 主体도 家族, 同僚集團, 教會, 메스 미디어 등 多樣할 뿐더러 教育課程에 대한 政治的 統制는 原則的으로 容認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比較的 多元的 社會價値의 자유로운 受容이 可能하므로 個個人은 自己의 個人 目標를 實現하기 위한 努力을 多面的으로 展開할 수 있고 人間의 私的 生活領域이 制度的으로 保障된다는 점은 重要的 意味를 지닌다 하겠다.

5. 韓國 靑少年의 意識 構造

다음에는 韓國의 諸社會化方法과 人間의 本性을 前提로 하면서 靑少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價值觀과 態度를 가지고 있는지 그 實在的인 調查資料를 土台로 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여기서 사용된 實証的 資料로서는 주로 中央靑少年保護對策委員會가 1973年 任意標集方法을 통하여 全國 58個 高等學校 男女學生 9,866名을 對象으로 調查한 結果에 依存하고⁽⁶⁷⁾ 그밖에 「靑少年 意識白書」 「경향신문 1977.1.1」 등을 使用한다.

가. 人生觀

靑少年들의 生活에 있어서의 目標가 어떤 것이냐를 통해서 意識構造의 特性을 알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目標는 각자가 지니는 價值中 가장 核心이 되는 것이므로 意識構造의 中心이 무엇인지를 間接적으로 表示해 주기 때문이다. <表-9>에 의하면 「돈이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취미에 맞는 生活을 하겠다」고 對答한 者가 29.3%로서 가장 많고, 그다음 「부정을 이겨 나가면서 정직하게 살겠다」는 것은 27.4%로 나타났다.

여기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돈이나 명예보다 취미생활, 즉 自身의 選擇基準을 中心으로 한다는 者와 不正을 이겨나가면서 산다는 者가 全體의 60% 水準이므로 一般的으로는 健全한 意識을 지녔다

<表-9>

生活目標

(%)

항 목	성 별		지 역 별		
	남	여	대도시	도시	읍면
열심히 일하여 부자가 된다	13.6	9.8	10.5	13.2	11.3
착실하게 공부하여 명예를 얻는다	12.2	14.8	14.3	11.4	14.9
돈이나 명예를 생각지 않고 취미에 맞는 생활을 한다	29.2	29.4	31.4	29.2	27.5
그날 그날을 태평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지낸다.	12.2	10.3	12.8	10.3	10.9
부정을 이겨 나가면서 정직하게 산다.	25.0	29.6	22.3	28.9	30.1
나자신을 생각지 않고 국가사회 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며 산다.	4.2	1.9	2.9	3.3	2.9
기 타	2.8	2.5	4.4	2.5	1.2
무 답	0.8	1.7	1.4	1.2	1.2

고 할 수가 있다. 다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취미가 무엇이나
에 따라서는 잘못하면 不良化할 可能性도 없지는 않는 것이다.

응답내용 가운데 한가지 否定的 現象은 「그날 그날을 태평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지낸다」는 者가 10%를 넘는 水準인데 이같은
生活目標를 가지는 靑少年은 犯行化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否定的이라고 해서 반드시 不良化하는 것은 아니다. 價

또 한편으로 靑少年들은 自己의 人格修養이나 장래의 目標을 위하여 同一視할 人物을 설정하여 生活하고 있다. 그러므로 靑少年들에게 自己가 尊敬하는 人物을 질문해 보면 그들이 지향하는 人生目標나 人生觀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表 12>에 의하여 그들이 어떤 사람을 尊敬하는지를 알아본 結果 大体로 30名가까운 人物이 登場되고 있다.

<表 12> 尊敬하는 人物

순위	이름	순위	이름	순위	이름
1	이순신	18	이울곡	35	공자
2	케네디	19	베토벤	36	정봉주
3	링컨	20	에디슨	36	피테세
4	신사임당	20	맥아더	38	햇세
5	세종대왕	22	헬렌켈러	39	간디여사
6	슈바이처	23	히틀러	39	틀스토이
7	나폴레옹	23	뮐러	41	김소월
8	나이팅게일	25	처칠	42	제백장군
9	안창호	26	이승만	43	슈벨트
10	예수	27	김유신	44	헤밍웨이
11	아인슈타인	28	워리부인	44	루즈벨트
11	김구	29	강재구	46	카아네기
13	유관순	30	이광수	46	막사이사이
14	간디	31	세스피어	46	앙리튀낭
15	소크라테스	32	석가	49	김두한
15	안중근	33	이상재	49	알렉산더
17	페스탈로찌	34	김팔란	49	드폴

여기서 總 26 名의 歴史的 人物中 韓国人은 9 名이나 가장 높은 比率로 나타난 人物은 이순신이였다. 그리고 다음이 케네디, 링컨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서 關心을 表示해야 할 일은 外國人의 比重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韓國史 속의 훌륭한 人物을 발굴해서 愛國하는 國家觀을 기르는데서 더욱 적극적으로 活用해야겠다는 것을 暗示해 주는 資料이기도 하다.

나. 社會觀과 國家觀

靑少年은 社會 내지 國家의 장래를 담당할 後繼者라는 면에서 靑少年들이 社會와 國家를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 하는 問題는 대단히 重要的 것이다.

첫째 社會에 대한 滿足度를 통하여 社會觀을 추측해 보면 <表 13 >과 같다.

<表 13 > 社會에 대한 滿足度

(%)

항 목	전국	성 별		지 역 별		
		남	여	대도시	도시	읍면
만족이다	4.8	6.3	3.3	3.2	5.3	5.6
만족한 편이다	16.5	14.4	18.7	12.7	15.9	20.6
다소 불만족이다.	56.1	51.0	61.1	56.3	55.9	56.1
불만족이다	22.4	22.4	28.2	27.5	22.9	17.5
무 답	0.2	0.2	0.1	0.3	-	0.2

「당신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대하여 만족합니까」라는 質問에 대하여 「만족」 4.8% 「만족한 편」 16.5%로 満足度를 나타낸 學生은 全體의 21.3%에 지나지 않는다. 外國의 경우를 보면 満足度가 日本 25.9%, 西獨 60.9%, 美國 63.5%, 스웨덴 64.0%, 필리핀 74.7%, 스위스 77.7%, 英國 78.7%, 印度 83.7%, 불란서 85.0%, 브라질 87.4%, 유고 89.2% 등과 비교하여 저조한 편이다.

이것은 두가지 次元에서 解釋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青年心理學的인 解釋이고 다른 하나는 現實的인 解釋이다. 원래 青年에게는 抵抗의 心理가 表現된 側面이 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現實社會가 그들에게는 滿足보다는 不滿足을 더욱 많이 經驗케 하는 要因이 있으리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社會에 대한 不滿足의 內容을 보면 짐작이 간다. 즉 <表 14>에서 보면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하다」는 응답이 30%이고 「성실 근면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한다」가 25%를 차지하며, 「正義가 통하지 않는다」, 「젊은이의 意見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不滿足을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로서도 問題가 된다.

물론 그들의 응답이 感情的이며 觀念的이고 現實을 分明히 모르고 그렇게 느끼는 點도 있겠으나 그들이 그와같은 感情을 경험할 만한 現實的 事實을 無視할 수도 없다고 하는 면에서 青少年 意識形成에 있어서의 環境的 次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表 14 >

社 會 에 대 한 不 滿 의 內 容

(%)

항 목	전 국	성 별		지 역 별		
		남	여	대도시	도시	읍면
젊은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10.5	10.8	10.1	10.6	10.1	10.8
정의가 통하지 않는다	13.9	17.2	10.5	18.9	11.9	10.9
국민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13.2	13.2	13.2	9.4	12.9	17.3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하다	29.8	27.5	32.2	26.1	33.3	29.7
성실 근면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한다.	25.6	23.4	27.8	28.5	24.8	23.4
풍속이 문란하다.	5.5	6.3	4.7	4.2	5.9	6.5
무 답	1.5	1.6	1.5	2.3	1.1	1.4

한편 自身の 態度가 어떠한 契機와 누구 또는 어떤 것의 영향에 달렸느냐고 물었을 때에 父母, 兄弟의 영향은 6% 水準이고, 教師의 영향도 20% 未滿의 水準인데 TV, 라디오 등과 같은 매스콤의 영향이 51% 水準에 이른다는 事實은 오늘날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表 15).

다음은 靑少年의 國家에 대한 意識態度를 알아 보기로 하자.

먼저 韓國의 자랑거리를 물어 본 결과 <表 16>에 의하면 「전통과 독자적인 文化」 34.9%, 「아름다운 國土」 26.7%, 「國民의 生活이 풍족해지고 있다」 9.5%, 「國民의 自由保障」 8.6%

< 表 15 >

態度形成의 媒介體

(%)

항 목	전국	성 별		지 역 별		
		남	여	대도시	도 시	읍 면
TV, 라디오의 내용	29.7	29.6	29.9	24.2	31.8	32.4
신문, 잡지의 내용	21.8	25.8	17.8	27.2	20.6	18.3
일반서적의 내용	6.3	5.3	7.3	6.5	5.8	6.7
학교 선생의 의견	19.3	17.7	20.8	18.8	21.3	17.6
동료나 친구의 의견	11.0	10.7	11.4	11.9	9.5	11.9
부모형제, 친척의 의견	6.1	5.9	6.4	5.5	6.1	6.7
문화인, 학자의 의견	4.1	3.9	4.2	4.3	3.7	4.3
무 답	1.7	1.1	2.2	1.6	1.2	2.1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면 60% 이상의 學生이 韓國의 전통문화와 금수강산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고, 政治, 經濟, 國民性의 問題는 뒤로 미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理想的인 國家像에 대한 靑少年들의 의식, 즉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점에서 훌륭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까」하는 質問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는 國家」가 27.4%로 제일 많고 다음은 「복지국가」 24.2%, 「부유한 국가」 18.2%, 「文化國家」 17.9%, 「외국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 11.5% 등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靑少年의 理想的인 國家像에 대한 意見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不安을 주지 않는

<表 16 >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

항 목	전 국	성 별		학 년 별			지 역 별		
		남	여	1 학년	2 학년	3 학년	대 도시	도 시	읍 면
자랑거리라고는 없다	12.4	14.1	10.8	9.2	13.3	14.7	15.6	12.6	9.5
국민이 성실하 고 부지런하다	3.3	3.9	2.8	2.9	3.8	3.2	2.7	3.0	4.1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8.6	7.0	10.1	9.8	8.2	7.6	4.0	8.7	12.3
전통과 독자적 인 문화를 가 지고 있다	34.9	35.9	34.0	37.0	34.7	33.1	41.1	34.3	30.3
아름다운 국토 가 있다	26.7	23.3	29.9	28.1	25.2	26.7	22.9	27.2	29.4
국민의 생활이 풍족해지고 있다	9.5	10.5	8.5	9.1	10.1	9.3	7.0	10.9	10.1
기 타	2.7	3.4	2.0	2.2	2.5	3.5	4.7	1.7	2.0
무 답	1.9	1.9	1.9	1.7	2.2	1.9	2.0	1.6	2.0

<表- 17 >

理想的인 國家像

(%)

항 목	전국	성 별		학 년 별			지 역 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대도시	도시	읍면
경제적으로 부 유한 국가로서	18.2	21.6	15.0	17.6	17.9	19.2	15.8	18.7	19.8
문화국가로서	17.9	15.2	20.5	17.3	19.1	17.1	16.6	17.7	19.2
복지국가로서	24.2	24.0	24.5	25.8	24.7	22.1	29.3	23.9	20.1
일상생활에 불 안을 느끼지 않는 국가로서	27.4	27.5	27.2	28.4	26.1	27.8	24.0	28.7	29.8
외국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로서	11.5	11.0	12.0	10.3	11.3	13.0	13.5	10.4	10.9
무 답	0.8	0.7	0.8	0.6	0.9	0.8	0.8	0.6	1.0

自由國家로서 또는 安定된 福祉國家를 갈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17 >.

이것을 보면 韓國의 靑少年들은 國土分斷에서 오는 心理的 要因이 얼마나 크게 作用하는지를 想像할 수가 있다. 經濟나 福祉가 결코 싫은 것은 아니겠지만 分斷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탈없이 安心하고 살 수 있는 國家的 環境을 갈망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6·25라는 쓰라린 體驗을 하지 않고 父母나 學校에서 배운 것, 每日報道되는 것,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經驗生活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지도 모른다.

끝으로 韓國 靑少年들의 國家에 대한 忠誠心의 一側面을 調査해 보면 <表 18>과 같다. 즉, 「맡은 일을 충실히 하여 國家發展에 도움이 되겠다」는 比率이 50.8%, 「주어진 義務와 責任을 다하겠다」는 態度가 37.9%,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더라도 國家를 위해 몸을 바치고 싶다」는 積極的 態度를 취하는 學生도 10%를 上廻하고 있다. 이것을 모두 합하면 98% 수준이 肯定的이고 健實한 國家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表 18>

愛國하는 態度

(%)

항 목	전 국	성 별		학 년 별			지 역 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대도시	도시	읍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고 싶다.	10.9	13.9	7.9	12.0	10.0	10.8	9.6	11.1	11.8
맡은 일을 충실히 하여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50.8	49.5	52.0	51.4	50.7	50.2	56.1	51.4	45.5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37.9	36.1	39.7	36.3	38.7	38.7	33.9	37.1	42.2
무 답	0.4	0.5	0.4	0.3	0.6	0.3	0.4	0.4	0.5

以上과 같이 資料蒐集關係上 靑少年學生中에서 高等學校 學生들의 意識의 一部를 分析 檢討하였을 때 그 大部分은 愛國的이고 健實한 人生觀, 國家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靑少年 가운데에는 社會를 不安하게 하고 成人으로 하여금 걱정이 되게 하는 思考體系를 가진 者도 없지 않다는 事實도 看過되어서는 안된다.

다. 道德意識

靑少年意識中 道德意識의 측면은 靑少年들이 갖는 行動規範, 社會規範의 테두리를 결정하는 指標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靑少年의 行動規範은 그 文化社會에 흐르고 있는 既存價值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既存價值觀은 社會體制의 變動, 文化樣式의 變용에 따른 文化的 衝突의 상황하에서 계속적으로 變化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靑少年은 어떠한 道德意識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全般的으로 보아 靑少年들이 지니는 道德意識에 있어서 性愛觀, 男尊女卑觀, 長幼有序觀, 扶養觀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保守性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 19 >

長幼有序觀

항 목	전 국	성 별		지 역 별		
		남	여	대도시	도시	읍·면
무조건 자리를 양보한다.	30.1	31.2	29.0	40.7	28.7	22.1
되도록이면 양보한다.	53.3	50.5	56.1	48.7	54.4	56.3
경우에 따라 양보하지 않아도 좋다.	15.7	16.9	14.4	9.7	16.1	20.5
모르겠다.	0.9	1.4	0.5	0.9	0.8	1.1

첫째 <表 19 >에서 長幼有序의 位階秩序觀에 관해서 보면 男女, 地域의 差異없이 80% 水準이 여전히 保守性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西歐人의 一般的 性向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韓國社會의 位階秩序는 중요한 價值로서 수용되고 있으며 靑少年들의 意識과 行動樣式을 결정하는 하나의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둘째, 孝道觀이다. 孝는 韓国人이 오랫동안 간직 해온 位階秩序의 中心이 되어 왔다. 이같은 孝觀에 대한 調査 結果를 보면 <表 20 >과 같다. 이것을 보아도 여전히 傳統性和 保守性이 強하게 나타나 있다. 「옳지 않을 경우에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40% 水準인데 이것은 人間平等, 民主主義를 理論적으로 學習한 效果이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역시 順從하는 傾向이 支配的인 것이다.

셋째, 父母奉養에 대해서 보면 여기서도 아직은 꼭 奉養해야 한다는 것이 觀念上으로는 絶對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即 80% 水準이 「奉養해야 한다」는 응답으로서 傳統性和 保守性이 強하게 維持되고 있다.

<表 20 >

孝 道 觀

(%)

내 용	전 국	성 별		학 년 별			지 역 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대도시	도시	읍면
무조건 奉養한다	3.3	5.1	1.5	4.2	2.4	3.3	4.4	2.6	3.0
우선 奉養하고 나중에 말씀드린다	53.7	54.1	53.3	49.7	53.8	57.6	55.8	53.0	52.5
옳지 않을 경우에는 따르지 않는다	38.8	35.9	41.7	40.7	40.2	35.4	36.7	40.1	40.4
모르겠다.	4.2	4.9	3.5	5.4	3.6	3.7	4.1	4.3	4.1

이상과 같이 靑少年의 道德意識을 몇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본
結果 全体的으로는 여전히 傳統性, 保守性 그리고 位階秩序를 肯定
的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支配的인 것 같이 보인다.

라. 世代意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人生觀, 國家觀, 道德觀 등에서 나타난
肯定的 측면과 保守性, 傳統性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그동안 겪
어온 韓國社會의 構造的 變動過程과 연관시켜 볼 때 오늘날 韓國
靑少年들은 西歐에 의하여 強要된 價值觀과 傳統的으로 內面化된
價值觀으로 심각한 內面的 葛藤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하
나의 社會的 問題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韓國의 靑少年들은 家庭問題로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다.
韓國社會는 西歐化, 産業化, 都市化에 의하여 大家族에서 核家族으로
변모되어 왔다. 大家族에 있어서 個人에게는 家庭生活이 社會生活
의 全部요 家庭生活은 序列的 秩序로 構成되고, 社會生活은 그 秩
序로 擴大된다. 大家族은 家父長의 嚴格한 統制 아래 家族員의
生活은 規範化된 倫理로 統率된다. 그러나 都市로의 農村人口의
流入, 工業化된 社會構造의 發展, 教育을 통한 地位上昇의 期待는
5人以下로 이루어진 核家族을 만들어 낸다. 核家族은 직장과 가
정의 분리로 인하여 父母의 영향력이 감소되게 되고 規範化된 價
值에 의한 理想追求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子孫들은 자연히 父母의
직접적 간섭을 벗어나서 個人主義的 態度를 가지고, 父母가 그들에

게 權威主義的인 方法이 아니라 民主主義的인 方法으로 指導해 주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父母는 生殖家族(procreative family)의 家長들로서 指向家族(family of orientation)의 成員으로서 받아들인 價值觀을 자식에게 強要한다.

여기서 父母世代와 子女世代와의 갈등이 생긴다.⁽⁶⁸⁾ 父母들이 원하는 것과 子女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서로 다른 方向의 價值를 追求한다. 父母世代로 보면 子女들의 行動이 無秩序하고 無責任하고 危險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子女들로 보면 父母들은 頑固하고 保守的이고 非進取的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青年期는 獨立한 世代로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는 時期인 동시에 精神的으로나 肉體的으로 不均衡의 時期이고 激動의 時期이다. 또한 이러한 成長의 不均衡과 더불어 社會로부터 習得한 行動樣式에 회의를 느끼고 自身の 行動에 동요를 가져오는 時期이기도 하다. 어른들이 그들에게 強요한 規範體系를 批判하게 되고 社會로부터 받아들인 行動樣式에 同調하지 않았음으로써 反抗意識을 보이게 된다.

一般的으로 傳統的인 社會에서는 젊은 世代가 既成의 社會에 대하여 반발하지를 않는다. 그것은 世代가 共同體的 規制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統制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代社會의 開放體制는 共同體的 統制의 힘을 弱化시키고 結社體的 橫的 紐帶를 剝蝕시킴으로써 既成의 社會構造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素地가 마련된다.

이러한 靑少年層이 集團意識을 갖고 組織化할 수 있는 契機는 그 層이 社會로부터 無視되고 利益이 부당하게 유린 당하고 있다고 의식할 때 發生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世代集團의 出現은 社會의 危機를 의미하기도 한다. 社會的 規範의 正當性을 실감하지 않는 새로운 世代는 야생적인 衝動力과 새로운 可能性으로서 既成世代와 正面으로 대진하여 挑戰한다. 그리하여 兩世代間에는 緊張關係가 노출한다는 것이 一般的 理論이다.

한국의 경우, 新舊世代間의 意識隔差는 大略 다음과 같은 理由라고 볼 수 있다.⁽⁶⁹⁾

첫째 그것은 兩世代에 거의 共通의 價值가 적고 活動의 動機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대체로 韓國의 既成世代는 기성의 性格構造에 既得權을 부여하여 그것을 基層으로 하여 모든 生活經驗을 누적하고 있으므로 保守的이고 現實主義的이나, 靑少年 世代는 老年層의 既得權, 즉 社會規範을 基軸으로 한 社會化過程을 통과하면서 정서적인 反抗的 生活體驗을 独自の 性格基層에 고착시킴으로써 急進的 理想主義的 측면이 강하게 顯在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두 世代의 關係는 Mannheim이 말하는 「自己轉換의 辨証法的 構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두 世代는 價值葛藤을 해결하는 方法으로서 效果的인 制度的 裝置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兩世代는 서로 自己의 內部的 問題를 認識하지 못하여 安全感이 없고 成員들이 焦燥하고 防禦的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自己 主張이나 威信에 非現

突的 態度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두개의 世代는 서로 葛藤을 통해서만 問題解決의 終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一種의 同類意識 내지는 世代意識의 出現을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理論的인 面에서 볼 때 世代意識이란 말속에는 여러가지 評價가 담겨져 있다.

첫째 그것은 靑少年層이 갖는 周邊人的 性格과 結付된 것들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成人文化와 少年文化의 中間的인 과도적 形態로서의 周邊文化의 性格이 부여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周邊文化이기 때문에 既存中心文化, 즉 成人文化에로의 移行過程에서 派生하고 反抗과 同調의 몸부림으로 表現된다. 이런 경우 世代意識의 特徵으로서는 第3者的 批判性과 情緒的 浮動性이 부각되어 나온다.

둘째의 觀點은 既存社會體制에 대한 젊은 世代의 對立意識에 근거한 世代意識의 提高이다. 既存世代의 生活이 모두 制度 속에 編入되고 制度의 權威앞에 그 몸을 벗어나기 어려운 침체와 無關心에 충만해 있을 때 世代交錯의 기치를 내걸고 既存體制의 保守性을 공격하고 새로운 秩序를 確立해 보려는 靑年들이 社會運動의 이데올로기로서 世代意識에 호소하게 된다.

이것은 体制의 構造的 矛盾과 관련되어 發生하는 것이고 따라서 世代意識은 反体制의 性格을 지니게 된다.

세째로 世代意識은 逸脫意識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것은 非同調意識이라고 일컬어 지기도 하여 逸脫은 社会的 期待, 즉 役割的 規範에서 어긋난 行動을 뜻한다. Merton은 成員의 所望의 基準이 되는 文化的 目標과 그 目標을 達成하는 手段으로서의 行動을 規制하고 統制하는 制度的 規範이 統合되지 않는데서 逸脫意識이 발생한다고 본다.⁽⁷⁰⁾ 이것은 結果的으로 社会化와 社会統制의 失敗現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社会的 矯正 내지 治療가 重要視된다.

네째의 觀點은 世代意識을 少數集團文化의 반영으로 看做하는 立場이다. 이것은 青年意識을 忌避하고 偏見視하는데서 비롯된다. 特定青年集團의 行動이 全体 世代를 代表할 수 없고 지나치게 現實과 유리되었다고 既成世代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은 評價가 내려질 수 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世代意識을 이상과 같이 評價한다고 할 때 韓國의 世代意識은 여기에서 提示된 諸類型 가운데서 어느 類型을 따르고 있다고 断定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때로는 그것이 肯定的으로 評價되기도 하고 때로는 否定的으로 評價되기도

한다. 또한 世代意識에 대한 各己 世代의 評價에도 混沌이 있다. 既成世代도 자기들을 不完全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가 하면 全的으로 責任을 지고 있다고 보기도 하며, 젊은 世代도 獨自的인 世代意識 提高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가 하면 없다고 체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世代意識을 에워싼 是非의 方向은 쉽게 定着되기 어려운 實情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韓國의 靑少年 意識은 多面性을 지니고 있는 過渡期的 過程에 놓여 있다고 한마디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韓國에 있어서도 傳統的 社會構造에서는 世代意識이 용인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意識의 必要性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統攝이 完璧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北傀의 全体主義社會나 組織화된 統制社會에서도 世代意識의 存在란 구태여 意味를 지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發生可能性을 元初적으로 削除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社會는 近代化를 指向하면서 다른 先進國家들을 따라 잡기 위한 努力을 경주하는 過程에서 都市와 農村의 격차, 이로 인한 人口移動, 產業構造의 不均衡, 西歐에서 도입된 物質的 金錢的 成功에 대한 價値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이 있고, 靑少年들은 社會·政治·經濟·文化의 多端한 構造에 適應하

면서 正常的인 生活을 영위하여야 한다는데서 韓國靑少年의 世代
意識問題가 발단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건전한 靑少年意識이
없는 나라는 近代化에 대한 계속적인 希望과 努力 集中을 無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면에서 靑少年問題에 대한 적극적 노
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6. 要約과 結言

가. 問題意識

지금까지 論議에서 提起된 바와같이 南北分斷의 歷史는 南北韓의 社会構造를 異質化시켰고 이러한 社会構造的 異質化過程은 동시에 서로 對立的인 人間型을 追求하여 왔다. 이에 따라 南北韓의 靑少年들의 意識構造는 既成世代와는 달리, 더욱 對照的 性格으로 兩極化된 것이다.

오늘날 意識構造의 兩極化現象은 民族의 同質性を 根源적으로 파괴하려는 北傀集團의 反民族的인 赤化妄想으로 해서 韓半島의 平和的 再結合을 영구히 가로막을 原初的인 威脅要素로 蓄積되어 가고 있다.

이상과 같은 前提위에서 다음과 같은 側面을 中心으로 南北韓에서 展開되고 있는 社会化過程과 이에 따른 靑少年意識構造의 諸特性을 比較 分析한 바 있다. 그러면 겉으로 南北韓의 主要特徵을 다시 한번 간추려 보고 여기에서 추론된 몇가지 問題를 提起함으로써 結言에 대하고자 한다.

나. 意識構造形成過程의 一般的 特性

(1) 社会化의 매개체에 있어서 韓國은 家族, 交友, 學校, 社会組織, マス 미디어 등 多元化되어 있고 連續성이 微弱한데 비해서, 北韓

은 託兒所, 유치원, 少年團, 社勞靑 등 勞動黨의 指導下에 一元的으로 系統化되고 組織化되어 있다.

(2) 韓國은 個別的, 社會化로 自律的인 學習參與에 의한 天才教育을 希望하고 있는데 비해서 北韓은 集團的 社會化方法으로 集團的 責任을 強調하고 他律的인 學習參與에 의한 集團的 壓力의 效果를 最大限 活用한다.

(3) 韓國은 相對的 社會化로 自己가 中心이 되어 각기 所屬한 社會集團이 要求하는 基準에 따라 다양한 意識構造가 형성된다. 北韓은 示範적 社會化로 소위 肯定的 模範을 제시하고 一貫性있는 劃一的인 價值基準에 따라 모든 意識體制를 劃一化시킨다.

다. 社會文化的 背景

(1) 初期社會化의 媒介體

① 韓國靑少年의 意識過程形成에 있어서는 家族의 社會化機能이 가장 重要視되고 있다. 즉 父母의 養育方式, 訓育方式, 賞罰體系 등의 影響이 중시되고 있다. 다만 韓國社會의 急速한 產業化過程은 점차 家族의 影響력을 弱화시키면서 交友關係, 매스·미디어의 效果가 重要視되기 始作하고 있다.

② 北韓의 初期社會化는 「어린이 保育敎養法」에 따라 家族의 影響보다 유치원, 탁아소의 集團效果를 이용한 劃一的 集團學習에 依

存하고 있다.

(2) 交 友

①韓國은 自發的인 選擇에 의한 交友關係를 유지하면서 西歐式의 合理性和 東洋式의 義理, 그리고 傳統性이 包含되어 있다.

②北韓은 党的 後備隊인 少年團, 社勞靑 등 勤勞團體의 組織生活를 媒介로한 公式的 關係로서 規格化되어 있다.

(3) 組織生活

①北韓은 少年團, 社勞靑, 女盟, 붉은靑年近衛隊 등 義務的이고 強制的인 靑少年集團의 組織網을 媒介체로 集團主義的 原則에 立脚하여 劃一的 集團學習을 강조한다.

②韓國의 靑少年團體는 自發的 參與와 人格的 도야면에서 會員들의 自己修養, 社會奉仕를 目的으로 한다.

(4) 学 校

①韓國은 人格教育, 知的教育과 生活指導教育을 통한 民主市民의 양성에 주력한다

②北韓은 「社會主義 教育學의 原理」에 立脚한 共產主義的 人間을 量産한다.

(5) 매스 미디어와 文芸

①韓國은 自律的 規制에 의한 輿論形成과 青少年善導에의 公器로서 役割이 重要視되고 있으나 그 効果는 制限된 範圍에 局限한다. 또한 報道內容의 多樣性으로 인한 逆機能的 效果가 作用한다.

②北韓은 매스 미디어를 黨이 完全히 独占하여 劃一的 價值만을 전달하는 集團的 宣傳者, 集團的 煽動者, 集團的 組織者로서 政治思想的 武器로 活用되고 있다. 따라서 報道內容의 劃一的 反復性에 따른 마취적 逆機能이 問題된다.

라. 人間의 本性

(1) 同調的 適應性의 側面

- ①存在論的 社會學的 役割演技者 (Role-Prayer) 概念 (Durkheim)
- ②精神分析學 (S.Freud) 의 決定因概念
- ③古典的 學習理論에서 前提하고 있는 "白紙" 의 反應體
- ④마르크스·레닌의 決定論的 人間觀

(2) 反社會的 獨自性의 側面

- ① M.Weber 의 意圖性
- ②反文化, 限界的 人間概念
- ③ A.Goffman 의 役割距離概念
- ④ P. Berger 의 實在主義

(3) 人間存在의 兩面性

- ①無限한 可能性을 지닌 複合的·多面的 存在이다.
- ②潛在可能性의 開發方法에 있어서도 多面的·複合的 過程이 要求된다.
- ③따라서 兩面性을 否定하는 劃一的·一元的 社會化媒介體와 機械論的 學習方法에는 반드시 그에 相應하는 逆作用이 수반한다.

마. 社會化의 目標와 學習方法

(1) 韓 國

- ①「國民敎育憲章」의 精神에 立脚하여 人格을 完成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 資質을 具備한 健全한 民主市民을 育成한다. 여기서 創造의 힘과 開拓의 精神, 協同精神, 國民精神 및 民主精神의 涵양을 強調한다.
- ②다른 한편 靑少年善導에 있어서는 健全한 身體, 情緒의 調和, 社會性의 開發, 知的行動의 發達, 未來指向性등을 勸獎하고 支援한다.
- ③人間의 尊嚴性과 目的性, 個性을 尊重하는 民主的 價值觀에 準拠하여 多樣하고 伸縮性있는 學習方法과 自律的인 學習參與을 強調한다.

(2) 北 韓

- ①金日成主体思想에 立脚하여 社会主義建設과 金日成体制유지에 必要的 政治的 道具로서의 革命的 人間育成을 目標로 한다.
- ②마르크스·레닌의 唯物論的인 道具화된 手段的 人間觀에 準 拠하여 条件反射式的 非主体的 機械的 學習으로 一貫한다.
- ③集團主義教育原理 (Makarenko)와 學校에 있어서의 社会主義 競争原理 (Novikova)에 立脚한 教育方法을 最大限 活用한 다. 예컨대 賞罰의 原則, 行動과 言語의 統制原則, 競争의 原理, 自我批判, 相互批判의 原理 등이 強調되고 있다.

(3) 北韓에 있어서의 矛盾

- ①教育目標는 主体型的 人間, 革命的 意識을 追求하면서도
- ②그러한 目標를 실현하는 方法, 過程, 媒介體는 非主体的·他律的· 機械的·一元的인 方法만을 強壓하기 때문에
- ③여기서 나타나는 意識構造의 特性은 그들의 원래 目標와는 相反되는 諸結果 (非主体性, 形式主義, 官僚主義意識 등)가 現實 化하게 되는 것이다.

바. 北韓靑少年의 意識構造

- (1) 表面上으로는 体制指向的, 金日成盲從的 行動樣式이 우선한다. 이는 恐怖와 긴장의 支配体制에 依存하고 있는 金日成体制에서는

불가피한 現象이다.

(2)內面的으로는 北傀가 追求하는 「主体型의 革命的 人間」으로서 갖추어야 할 意識內容보다는 金日成體制가 지닌 恐怖분위기와 機械論的 學習方法 등의 逆機能的 作用으로 말미암아 「現實疎外的」心理와 不安意識이 潛在한다.

(3)그리고 現實的으로는 反革命的, 非主体的인 官僚意識, 他律性, 盲從性, 形式主義가 支配한다.

(4)共產主義的 社會化는 「理想型」과 「現實型」間의 乖離를 수반한다. 즉 一面에서는 北傀集團이 追求하고자 하는 共產主義的 革命意識을, 他面에서는 金日成體制의 機械論的 社會化方法에서 연유하는 反社會主義的 他律性을 동시에 內包한 二重的이고 相衝的인 갈등의식을 가진다.

(5)따라서 心理的으로 극히 不連續的이고 非主体的인 意識수준은 現實的으로 安全을 追求하려는 他律性과 疎外意識, 權力追求的 權威意識, 不安意識 및 不信, 피해망상의 強迫觀念을 불러 일으킨다.

(6)나아가 이러한 相衝的 갈등의식은 새로운 자극에 대한 適應力을 弱화시킬 뿐만아니라 體制同調的 意識方向과 自我의 파괴속도를 急速하게 한다.

사. 韓國靑少年의 意識構造

(1) 人生觀

高等學生層의 生活目標가 대체로 進進한 편이다. 즉 「취미에 맞는 生活」과 「不正을 이겨나가면서 正直하게 산다」는 자가 가장 많다.

(2) 社會觀 및 國家觀

①社會에 대한 滿足度는 대단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된 原因은 「貧富의 差와 誠實·근면한 사람이 認定 받지 못한다」는데 基因하고 있다.

②國家에 대한 意識은 「獨自的 文化傳統」, 「아름다운 國土」등 韓國을 肯定的으로 評價하려는 進進한 國家觀을 가진자가 85%를 차지한다.

③愛國하는 態度를 測定한 결과 「말은 일을 充實히 하여 國家의 發展에 도움이 되겠다」는 者와 「義務와 責任을 다하겠다」는 者가 전체의 88.7%를 차지하였다.

④그러나 이상과 같이 人生觀, 國家觀에 있어서 肯定的 性向이 支配的인 가운데에서도, 다른 한편 「社會를 不安하게」 「不滿足하게」 생각하는 靑少年層도 동시에 包括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社會觀과 國家觀間에 差異가 內在한다는 면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社會觀과 國家觀은 매스컴의 影響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⑤理想的인 國家像으로서는 日常生活에 不安을 주지않는 安定된 福祉國家를 갈망하고 있다.

(3) 道德意識

①長幼有序의 位階秩序觀, 孝道觀, 父母奉養의 意識 등은 徹어도 觀念上으로는 아직까지 保守的 傾向이 支配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그러나 實際的 行動과 觀念上의 意識이 항상 一致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4) 世代意識

①急速한 産業化過程은 「非同時的인 것의 同時的 存在」現象을 수반하여 靑少年層의 心理的 갈등을 초래한다.

②第3者的 批判性과 정서적 浮動性등의 世代意識은 既成世代와 의 긴장을 초래한다.

③世代意識은 逸脫文化, 非同調意識으로 發展할 可能性을 內包한다.

④이상과 같은 可能的 方向속에서 볼 때 韓國靑少年의 意識은 多面性을 共存한 過渡的 性格을 띠고 있다.

아. 結論과 남은 問題

(1) 韓 國

①韓國은 急速한 産業化와 開放的인 社會化過程등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靑少年層의 社會的 不滿足, 國家觀과 社會觀間的 乖離, 그리고 世代意識의 形成등의 症狀을 보이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②이러한 社會的 不滿足과 世代意識은 社會問題의 發生可能性을 그만큼 높여준다는 점에서 볼 때, 社會的不滿과 世代意識의 發現을 刺戟하는 諸般社會文化的 要素를 제거하는 作業이 보다 積極化되어야 할 것이다.

(2) 北 傀

現在로서, 極端的인 閉鎖政策은 靑少年들로하여금 獨自的인 狀況 認識을 最大로 차단한다. 그리고 모든 行爲를 南韓問題와 결부시켜 해석하든가, 知識의 이데올로기性을 前提로 意識的인 操作政策을 強化하고 있다. 그 때문에 個人에게는 選擇의 餘地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서 靑少年들의 一元的 思考體制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다음과 같은 刺戟要因이 提起된다고 한다면 北韓靑少年들은 現實的 適應力을 喪失한 채 意識構造上의 瓦解가 急進될 것으로 豫測된다.

- ① 金日成의 約束(政策目標)이 실현不可能한 것이라는 점이 立証될 때, 즉 社会变化過程에 따라 期待構造와 機會構造間的 乖離 間隔이 심화될 때
- ② 金日成의 虛偽性이 立証될 때
- ③ 劃一性을 否定하는 또 다른 論理의 展開方法이 体制內的으로 認定될 때
- ④ 南北對話, 西方社会와의 交流等 外部世界와의 開放에 의해 異質的 刺戟이 北韓社会內에 流入될 때
- ⑤ 金日成以後, 偶像化目標가 상실되어 리더쉽이 瓦解되고 全体主義 体制에 動요가 일어날 때일 것이다.

(3) 남은 問題

그런데 보다 중요한 問題는 이상과 같은 가능한 狀況을 예측할 수 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北韓靑少年이 지닌 盲從的, 他律的이면서 난폭성을 띤 「革命意識」이 韓國에 대하여 어떠한 行動頻度를 나타낼 것인가라는 問題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観点에서 볼 때, 우리들은 다음 事實에 注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째, 그것은 北韓靑少年이 갖고 있는 盲從的 攻遂性과 被暗示性, 自我支柱의 明確性과 一元性 등은 韓國安保의 威脅要素로서 尙存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南北韓靑少年의 意識構造의 異質的 固着化가 民族同質性을 根源的으로 破壞함으로써 韓半島의 統一問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永久的 分斷의 危機的 要素로서 作用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未解決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다.

註 :

- (1) R.A.Bauer, The new man in Soviet Psychology(1952),
p.144
- (2) Ibid., p.132
- (3) Ibid., p.140-141
- (4) 高永復, 現代社会心理学, pp.51-54
- (5) Ibid., PP.54-55
- (6) 1976.4.27-29 間에 열린 最高人民會議 第 5 期 6 次會議에서 採
択(6 月 1 日施行)된 「北韓어린이保育教養基本法」은 全 6 章 58 条
로 構成되어 있다. 그 目的은 「國家와 社会의 指導로」
① 모든 어린이들을 主体型的 革命的 人民으로 키우고, ② 모
든 女性들은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負擔에서 解放하며,
③ 은 社会를 革命化, 勞動階級化하는데 이바지한다고 規定하
고 있다.
- (7) 실제로는 特權的 上流層을 除外하고는 一般住民 모두가 子女
의 養育費를 全額 負擔하고 있다.
- (8) 朝鮮中央年鑑, 1972 (평양, 1972), p. 333-6
- (9) 金鎮昇, 「北韓에 있어서 兒童教育」, 共產主義問題研究 第 3 卷
(1966), p.10
- (10) 金日成, 축하문: 全体少年團員들에게, (1971.6.6)
- (11) 高永復, 「北韓青少年的 政治社会化過程」, 研究論叢 28 号
(極東問題研究所, 1975), p.20
- (12) 崔光石, 「北韓에 있어서의 共產主義이데올로기教育」, 北韓政治

- 体系研究 (高大亞研, 1972), p.223
- (13) 都興烈, 「北韓의 젊은 세대」, 北韓 (1974.11), p.139
- (14) 大韓民國어린이憲章 (1957.5.5)
- (15) 青少年白書, 1975 (中央青少年保護對策委員會), p.285
- (16) Ibid., p.358
- (17) G.S.Count, The Challenge of Soviet Education, (1957), p.45
- (18) 北韓全書 中卷 (極東問題研究所, 1974), p.361
- (19) 北韓教科書分析 (國土統一院, 1972.5) 參照
- (20) A.Inkeles, 「The Totalitarian Mystique」, C.J.Friedlich (ed), Totalitarianism (1954)
- (21) 朴東雲, 北韓政治機構論 (1964), pp.166-168
- (22) 여기서 北韓新聞의 主題分布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金日成
우상화, ② 「革命傳統」 계승, ③ 黨政策의 宣傳과 實踐強要,
④ 經濟建設 ⑤ 南韓의 惡宣傳, ⑥ 祖國統一, ⑦ 反美運動,
⑧ 國際뉴스 등이다: 南北韓 比較 (國土統一院, 1973) 參照
- (23) 朝鮮中央年鑑, 1965, p.165
- (24) 青少年白書 '75, p.101
- (25) 高永復, 現代社會心理學, p.
- (26) 洪承稷, 韓國人의 價值觀研究 (1969), p.99
- (27) 國民教育憲章 (1968.12.5)
- (28) 青少年白書 '75, pp.283-284
- (29) M.Khaldiyev, 「革命的 理想의 정진으로 젊은이를 育成하라」

- Pravda(1965; .11.28); P.Hollander(ed), American and Soviet Society: A Reader in Comparative Sociology and Perception (1969, 日訳), pp.213-218
- (30) H.McClosky & J.E.Terner, The Soviet Dictatorship. (1960), pp.243-244
- (31) Bredmeier & Stephenson, The Analysis of Social System (1962), p.310
- (32) 北韓社会科学研究院, 현대조선말사건 (東京版, 1969), pp.286-287
- (33) 金日成, 最高人民會議 第4期1次會議, 政綱演說 (1967.12.16)
- (34) 예컨대 수정주의, 교조주의, 기회주의, 자유주의, 사대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부르조아思想, 종파주의, 가족주의, 관료주의 등이다. : 金日成 政綱演說 Ibid.
- (35) 민병석, "北韓의 統一政策에 관한 研究", 北韓 (1975.9) 参照.
- (36) L.I.Novikov, 学校에 있어서의 社会主義競争 (Moscow, 1959)
- (37) 韓完相, "北韓社会의 價值觀研究", 南北韓比較研究論叢 (國土統一院, 1976) pp.512-516
- (38) R.Dahrendorf, Essays in the Theory of Society(1968), pp.19-87
- (39) E.Durkheim, Regles de la methode sociologique(1950)
- (40) S.Freud,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Vol.4,5(1953); "Psychopathology of Everday Life", A.A.Brill(ed), The

- Basic writings of Sigmund Freud(1956),pp.35-178
- (41) B.F.Skinner,Beyond Freedom and Dignity(1948)
- (42) B.F.Skinner,Walden Two(1948); Science and Human Behavior(1953) 등 참조
- (43) 都興烈, "北韓社会에 있어서 統制組織과 人間性的 問題", 國防研究, 18 권 1 호 (1975),pp.21-22
- (44) 都興烈, 南北韓社会文化力量比較 (국토통일원, 1977)pp.49-52
- (45) 조선노동당 규약 제 5 조, "당원의 의무";北韓便覽(공산권문제연구소, 1971),pp.537-538
- (46) Z.A.Jodan, "Alienation and Withdrawal among Polish Youth", A.Z.Rufbinstein(ed), Communist Political Systems(1964),pp.350-353
- (47) 레닌全集 第 31 卷(東京:大月書店), p.976; 國防研究, 15 권 2 호 (1972),p.41
- (48) 노동당 제 4 차대회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강조(1961.9)
- (49) 노동신문, 1976.6.15 字 社說
- (50) K.Horney, Our Inner Conflicts (N.Y.: Horton,1945)
- (51) 韓完相, op.cit., p.522
- (52) 金日成選集 第 4 卷, p.346; "作風이란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일꾼들의 사상과 방법의 종합적 표현이다"라고 한다.
- (53) C.J.Friedlich & Z.K.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1965): 全体主義独裁政治論(訳), (1972), pp.245-261.

- (54) 레닌全集 第26卷, pp.293-294
- (55) C.Argyris, Personality and Organization(1957)
- (56) W.H.Whyte, The Organization Man (1956)
- (57) A.Inkeles, Public Opinion in Soviet Russia(1950),
p.183
- (58) T.Parsons, Structure and Process in modern societies
(1960), pp.45-46
- (59) 朴東雲, op.cit., pp.187-188
- (60) 金日成,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 (1965); 金日成選集 第4卷 pp.239-240
- (61) Ibid., pp.241-245
- (62) Ibid., p.239
- (63) M.Mead, The Soviet Attitude toward authority(1951),
p.38
- (64) R.A.Bauer, "The psychology of the SOviet middle
Elite", Kluckhohn & Murray(ed), Personality in Nature,
Society and culture(1950), pp.633-650
- (65) A.Inkeles & Geiger, Soviet Society (1961), p.249
- (66) 金日成, 노동당제1차대표자회의에서 한 결론(1958.3.6);
金日成選集 第5卷, p.385
- (67) 靑少年의 意識에 관한 調査研究: 高等学校學生을 中心으로
(중앙靑소년 보호대책위원회, 1973.12); 靑少年白書 1975;

青少年意識白書 (경향신문, 1977.1.1 字)

(68) 青少年指導의 基本方向 (국무총리기획조정실, 1976.12), pp.58-66

(69) Ibid., pp.63-66

(70) R.K.Merton, "Social structure and Anomie", Social Structure and Social Theory (1957), pp.131-160